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소외에 관한 연구

: 안동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윤대원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7년 5월

Copyright © 2017 DaewonYoun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A Study on Alienation in a Local Church: A Case of Andong Church in Andong, Korea

Daewon Youn

Andong Church, Andong, Kyungsangbuk Do, Korea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search the cases of human isolation occurring in churches and to find the cases that showed success – either in overcoming or mitigating isolation. An additional purpose is to identify the aspects that affect on overcoming isolation and to observe common factors in reaching the solutions. Through this I hope to establish a specific system on the basis of deeper study. Furthermore, this thesis will show how to solve the problem of isolation affecting on church growth in a direct or indirect way.

Although some churches have studied the treatment of isolation as a phenomenon in secular society, few churches have tried to solve the problem of isolation as it occurs in churches. For this reason, I chose to focus on the cases of human isolation at the church where I am working, which could also happen in other churches.

I classified human isolation into two categories: that occurs inside the church and that is outside of the church. Human isolation occurring in churches includes system-based isolation, relationship-based isolation, self-isolation, and religious isolation. Human isolation happening outside of the church means discrimination, male and female roles based on biased notions in a local society influenced by Confucianism, differing status, high or low positions in a society, and

conflict based on ancestry.

The survey was conducted not only to research the solution of human isolation in churches, but also to find out how it was solved, or how close the subjects came to the goal of overcoming it. The research showed most of the surveyed conflicts were solved to some degree or almost completely. The survey revealed what kinds of missionary jobs were affected in finding its solution. Through the collected data, I came to find a keyword crucial to the solution, that is, "Communication." Systematic communication skills shown from this thesis will suggest a way of solving human isolation in churches. Therefore, this thesi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consider how to communicate systematically for people who plan missions at churches. It will also play a great role in overcoming human isolation and aiding church growth.

## 국문초록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소외에 관한 연구  
안동교회를 중심으로

윤대원

안동교회, 경북 안동

본 논문의 목적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간 소외 현상과 그것을 완화 또는 극복한 사례들을 찾고, 그 사례에 영향을 미친 교회 내 사역들과 그 사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를 찾아내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요소를 좀 더 연구하여 여러 사역에 체계화함으로 인간 소외 현상의 완화 또는 극복에 기여하게 하는데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함에 있다.

교회가 주체로서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소외의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교회내의 사역들을 소개하는 연구들은 있어왔다. 그러나 교회가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으로 연구되는 논문은 그 수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저자가 속한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소외의 현상들을 토대로 다른 교회들에서도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간 소외의 현상들을 다루고자 한다. 그것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도적 소외, 관계적 소외, 자기 소외(일탈), 종교적 소외와 같이 내부적으로 요인에서 일어나는 소외를 다루었다. 그리고 지역적 특색(유교)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 내지는 역할의 고정, 직분이나 신분으로 나타나는 높고 낮음, 가문이나 지역으로 나타나는 파벌과 같이 외부적인 요인에서 일어나는 소외를 다루었다.

설문을 통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소외의 현상들을 조사하였고, 그 소외의문제들이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상당 부분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것을 완화 또는 극복하는데 어떤 사역들이 영향을 주었는지와 그 사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연구한 결과로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냈다.

따라서 각 사역들을 계획할 때, 어떻게 사역들에 소통의 요소들을 체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본 논문의 성과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인간 소외의 현상을 극복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중요한 연구가 되리라 본다.

## 목차

감사의 글.....	x
표 목차.....	ix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선행 연구.....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	4
논문의 구조 .....	5
II. 인간 소외에 대한 통(通)성경적 개념.....	6
인간 소외란?.....	6
인간 소외의 통(通)성경적 이해.....	16
III. 인간 소외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신학적 이해.....	19
인간 소외의 심리학적 이해.....	19
인간 소외의 사회학적 이해.....	22
인간 소외의 신학적 이해 - 창조와 타락.....	28
인간 소외의 신학적 이해 - 소외와 죄.....	35
인간 소외의 신학적 이해 - 소외된 인간의 증상.....	43
IV. 안동교회 중심으로 일어나는 인간 소외의 현상과 분석.....	48
안동교회에서 일어나는 인간 소외현상과 분석.....	48
안동교회에서 일어나는 인간 소외현상에 대한 평가.....	56
V. 안동교회의 인간 소외현상의 완화 또는 극복을 위한 소통.....	58

안동교회의 인간 소외현상의 완화 또는 극복 사례 .....	58
안동교회의 사회적 소통.....	74
VI. 결론.....	86
요약과 평가.....	86
결론과 제언.....	87
부록 .....	89
참고문헌.....	93



## 표 목차

<표1>안동교회에서 일어나는 제도적 소외.....	50
<표2>안동교회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소외.....	51
<표3>안동교회에서 일어나는 자기 소외(일탈).....	53
<표4>안동교회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소외.....	54
<표5>2011년 안동교회 상반기 소그룹 박람회.....	64
<표6>2012년 안동교회 상반기 소그룹 박람회.....	65
<표7>2012년 안동교회 하반기 성경 아카데미.....	66
<표8>2014년 안동교회 하반기 성경 아카데미.....	67
<표9>안동교회 제1회~12회 호크마 자녀교육세미나 경과내용.....	68
<표10>안동교회 한 지붕 가족사랑 예배.....	69
<표11>안동교회 주일출석 통계.....	74
<표12>안동교회 경로대학 2016년 강의일정.....	76
<표13>안동교회 2016년 평생교육센터 개설강좌 및 강사소개.....	83

## 감사의 글

처음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가운데 시작된 목회학 박사과정의 이제야 결과물로 나타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본 논문을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조병호 교수님, 김영래 교수님,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논문의 핵심적인 방향 설정에 도움주신 조병호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논문의 진행에 있어서 섬세하게 지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갱신에 대한 시각과 최고의 강의로 귀한 가르침을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도 감사를 전해 드립니다.

본 논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안동교회 김승학 담임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안동교회 성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김혜선과 두 자녀 충권, 희진에게도 함께 해 주지 못한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에 도움을 주신 장인 어르신께 감사 드립니다. 이외에도 언급되지 않은 여러 도움의 손길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5월에

윤대원

## 제 I 장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인간 삶에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것들은 육체적 건강과 수명, 교육의 수준, 문화적 혜택, 생활의 향상, 정신적 건강의 유지등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 의료 기술의 향상은 육체적 건강과 수명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어 주었고, 경제적 번영을 통해 우리는 교육의 수준과 문화적 혜택과 생활수준이 향상을 누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복하기 보다는 불행하다고 여기고, 더 나아가 비인간적인 사회의 모습에 절망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비인간적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변화를 지적하는 다양한 용어들의 출현은 이러한 상황을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오늘날 현대문명의 발달이라는 놀라운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가 진정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있는가, 또 이것이 인간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sup>1</sup> 본 연구에는 이러한 비인간적 현상들을 지적하는 여러 용어들 중에 ‘소외’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 특히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낸 사회적 체계와 도구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인간 소외’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한다. 인간소외 현상은 인간의 모든 사회활동

---

<sup>1</sup>요한 바오로 2세, *인간의 구원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1988), 45-47.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소외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활동, 특별히 기독교 종교활동으로 제한 할 때에도 이러한 인간소외의 현상이 발생할까? 종교를 가지고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신적 존재 앞에 의지하는 것임을 보편적으로 인정한다면, 역시나 종교활동에서도 인간소외의 현상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독교 종교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 인간소외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교회의 인간소외를 연구함으로써 인해서 교회 전체의 인간소외를 다룰 수 없다는 한계성을 인정하면서도, 저자가 소속된 안동교회의 인간소외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몇 가지 인간소외의 유형들을 나누어 보고 그에 대한 극복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인간소외라는 문제를 다소 추상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보려는 이유에서이다. 둘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는 실제의 노력들을 통해서 좀 더 이 문제에 발전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이다. 셋째, 이와 비슷한 유형의 소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해결의 가능성과 유익을 전해주고자 함이다. 넷째, 좀 더 다양한 연구의 접근이 이루어져 폭 넓고 깊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인간소외현상(Human alienation phenomenon)’을 정의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소외 현상의 몇 가지 유형들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 및 분석하고, 이것들을 토대로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적용하여 인간소외 현상이 완화 내지는 극복된 사례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인간소외 현상을 완화 내지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의 구조

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세력(정부를 포함하여)들이 체계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판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려 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간소외 현상이 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소극적이지만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하여 그러한 현상을 완화 내지는 극복함으로써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소통하는 교회로서의 이미지로 전화되고 그로 인하여 지역과 소통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데 본 논문이 기여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선행 연구

소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목회의 유형으로서 도시 소외계층(빈민)에 대한 논문 일부와, 여성이나 노인층을 소외된 계층으로 명시하여 기술한 논문들이 있다. 교회 내에서의 소외에 대한 구체적 유형이나 극복사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김연천의 논문인 ‘현대사회의 소외와 치유’에서 성경과 사회학에서의 소외를 다루었지만, 문헌을 통한 어원적 고찰과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에 대한 연구에만 한정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소외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

이동호의 논문인 ‘소외 계층을 위한 섬김 사역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외 계층(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숙자, 결식아동 등)에 대한 목회적 접근을 다루었고, 교회를 섬김의 주체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저자가 다루려고 한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이 적극적으로 연구된 사례가 거의 없는

관계로 이번 논문은 그 차별성과 함께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극복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문헌연구와 설문방법과 극복사례를 사용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로는 소외의 일반적인 개념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설문방법으로는 안동교회를 중심으로 세대별(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소외의 여러 유형들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나누려고 한다. 극복사례로는 세대별로 분석된 소외의 유형에 따라 몇 가지 극복을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실험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연구를 기반으로 소통과 연관된 부분들을 찾아내어 교회 내 소통의 수준을 평가하고 진단하려고 한다. 그리고 소통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와 장치들이 필요한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본 논문은 문헌을 통해 소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설문을 통해 안동교회 내에 일어나는 소외의 유형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유형들 속에서 소통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다시 집중적으로 연관지어 보려고 한다. 결국에는 소통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인해서 이러한 상당한 소외의 유형들이 완화 내지는 극복되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소통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본 논문은 교회 내 일어나는 소외현상을 다루는데 있어서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려했으나, 극복을 위한 대안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분석

하는 일이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관계로 쉽지 않았다.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이 아직은 한국교회의 상황에서는 흔한 예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저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대표의 허락 하에 안동교회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 논문의 구조

이 논문은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제 I 장에서는 이 논문의 필요성, 선행연구,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이 논문의 구조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제 II 장에서는 인간 소외에 대한 통성경적 개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데, ‘인간 소외의 개념’ 과 ‘인간 소외의 통성경적 개념’ 을 다루고자 한다.

제 III 장에서는 ‘인간 소외의 심리학적 이해’ 와 ‘인간 소외의 사회학적 이해’ , 그리고 ‘인간 소외의 신학적 이해’ 를 다루고자 한다.

제 IV 장에서는 안동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소외 현상들을 설문(1)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하고, 유형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문(2)를 통해 안동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특색인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교회 내에서 일어난 소외 현상을 정리하고, 그것을 완화 또는 극복하는데 유익을 주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 소외 현상들을 완화 또는 극복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그 안에 소통이 주는 유익한 부분들을 연구할 계획이다. 그래서 인간 소외 현상을 완화 또는 극복하는데 소통의 역할이 가지는 효과를 연구할 계획이다.

제 V 장은 인간 소외 현상을 완화 또는 극복하는데 소통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면서, 동시에 소통을 성경에 기반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안동교회 소통의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하려고 한다. 또한 평가를 바탕으로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VI장은 논문의 요약과 평가, 그리고 결론과 제언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 제 II 장

### 인간 소외에 대한 통(通)성경적 개념

#### 인간 소외란?

소외(alienation)란 ‘남의 것으로 만든다’, ‘제거한다’ 등의 뜻을 지닌 라틴어 alienare라는 동사로부터 빌려 온 것으로 세 가지의 뜻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법률적 차원에서 사용된 말로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이고, 둘째는 정신적인 불안 상태와 연관되어 사용된 것으로 무의식 상태와 연관시켜 주는 인간의 정신력, 즉 지각과 감각의 능력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해와 지각의 능력을 상실한 인간을 소외된 인간이라고 표현한다. 셋째로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인간 간의 따뜻한 관계가 차가운 관계로 변질되는 것을 지시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 관계에서 자아가 타인에 의해 배척되는 불행한 인간 관계를 뜻한다. 중세에는 신과 인간 간의 단절되는 비극을 지칭했던 것이다.<sup>1</sup>

서구에서 소외의 개념은 삶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난해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이 여러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기의 운명이 스스로의 지배를 벗어나 외부적 대리자, 운명, 행운, 제도적 장치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느낌인 무력성, 그리고 세상 또는 인간 상호간의 행동의

---

<sup>1</sup>김주연, *현대문화와 소외*(서울: 현대사상사, 1976), 71-72.

영역에서 포괄성이나 일관된 의미의 결여와 일반적 의미의 삶에 있어 맹목적성 때문에 생기는 감정인 무의미성<sup>2</sup>을 소외로 본다.

또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뚜렷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이나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에 알지 못하는 공허함<sup>3</sup>을 소외로 보기도 하고, 만연된 일탈행위, 불신감, 무한한 개인적 경쟁심 등과 같은 행동으로 사회의 기존 가치로부터 벗어난 감정에서 기인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정들을 이해하는 구속성의 결여인 무규범성, 그리고 사회관계들 속에서 어떤 집단 구성원들 간에 자신이 고립되거나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사회적 고립인 자기 소외<sup>4</sup>도 있다.

위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소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이웃에게서 오는 소외, 다른 하나는 내부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자기 소외가 있다. 환경에서 오는 소외는 제도적 소외로, 이웃에게서 오는 소외는 관계적 소외로 표현할 수 있겠다.

#### 제도적 소외

소외는 먼저 무엇으로부터 소외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제도적 소외는 바로 자신이 속한 국가나 사회, 혹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경우이다. 제도적 소외는 자신이 생활해 온 환경과 다른 접근 방법이나 평가에서 오는 소외이다. 제도가 사람의 편리를 따라가기 보다는 대다수 제도에 사람이 맞추어간다. 제도는 일방적일 때가 다수이다. 제도라는 것이 모든 지역과 대상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는 그 지역과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의 예를 들

<sup>2</sup>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 대 백과사전 Vol.9*. (서울:기독교문사, 1988), 586.

<sup>3</sup>Rollo May, *자아를 잃어 버린 현대인*, 백상창 역 (서울:문예출판사, 1974), 11.

<sup>4</sup>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 대 백과사전 Vol.9*, 586.

어보자. 복학생의 경우 대다수 수강신청방법과 건물의 위치 등 학교적응에 관련된 문의가 잦다. 이유는 과거 자신이 학교생활을 했던 당시의 환경과 제도가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요즘 대학들은 1년 안에 일부 환경들이 달라진다. 그리고 2~3년에 한 번씩은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다. 보통 이때 복학생들의 경우 겪게 되는 적응상의 어려움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도는 행정절차에 관련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친절할 뿐이다. 심지어 그런 사람에게조차 일방적으로 친절하지 않을 때도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총회에서 권장하는 교회 헌법이 있지만, 현실은 각 교회마다 총회 헌법과 다른 조항들을 만들어서 각 교회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 그러한 제도적 소외를 경험하는 예가 적지 않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 내에 있는 직분 중 1년 마다 임명하는 집사의 경우이다. 저자가 소속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다. 총회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집사는 25세 이상의 무흠세례교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저자가 소속된 안동교회는 30세 이상의 결혼한(물론 미혼의 경우에도 특별하게 당회가 허락하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매우 드물다) 사람 중 무흠세례교인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3년이 지나야 된다. 타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은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적인 것에도 소외의 현상이 일어난다.

### 관계적 소외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소외 중 가장 흔한 형태가 이웃들로부터 일어나는 관계적 소외이다. 관계적 소외는 집단적 소외와 개인적 소외로 나눌 수 있다.

집단적 소외는 나찌에 의한 유대인 학살, 미국의 흑백 갈등과 같이 인종적이거나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증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우이다. 또한 노사의 갈등은 회사 운영자와 노동자 간의 간극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로 주로 노동자들의 노

동력을 착취하는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한국 사회의 혼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세력이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한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들 수 있다. 대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면 본의아니게 정치세력이 국민을 소외되게 만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 소외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이다. 소외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만큼 개인적 소외는 사회의 문제가 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집단이 개인을 소외시키는 현상, 개인이 개인을 소외시키는 현상으로 나눌 수 있겠다. 집단이 개인을 소외시키는 현상 중에는 집단 따돌림 현상이 대표적이다. 특히 공동체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회사에게, 군대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공동체가 형성된 곳이라면 언제든지 나타나고 또 나타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종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단체가 마치 신성 불가침 같은 영역으로 여겨져 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소외의 현상을 공론화해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들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들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마치 종교 단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밖으로 보여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기독교(교회)를 포함한 다른 종교 단체도 내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외의 현상들을 눈 여겨볼 필요가 있고, 또 연구의 가치가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노력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장치들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소외의 현상은 쌍방향이다. 예를 들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단절에서 오는 소외의 현상은 소외 당하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소외 시키는 사람은 뒤에서 다루겠지만 초월적 존재와의 단절(종교적 소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체로부터 한 개인이 소외 당했을 때에

이것이 외부에 공개되었을 때 사회로부터 그 공동체는 건강(건전)하지 않은 단체로 그 이미지가 굳어져서 신뢰뿐 아니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외는 쌍방향으로 피해를 준다. 우리 사회와 그 속에 속한 공동체의 소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회로 볼 때에, 그리고 공동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사회와 공동체의 큰 손실을 줄이는 일이라 볼 수 있다.

#### 자기 소외 - 일탈

현대인은 자아를 상실하여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었다. Rollo May는 자신의 심리치료 및 동료들의 정신요법의 경험에 의해 20세기 중엽의 불행의 조건이 텅 빈 느낌, 즉 공허감에 있다고 했다.<sup>5</sup>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공허감이 나타난다. 이러한 공허감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은 일탈을 꿈꾸게 된다. 가끔은 파괴적인 행위까지 서슴치 않는다. 그래야 겨우 이러한 공허감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 반복되는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로 인해서 공허감이 찾아 온다. 이러한 공허감을 잊기 위해서 무엇인가 창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공허감을 해소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행동 양식이 일탈의 형태로 나타난다. 알콜, 본드흡입, 마약, 성적행위, 폭행과 폭언 등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본인이 일탈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의 모습들도 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TV 앞에서 매달려 있거나, 다양한 복권을 사서 매주 끊고 있거나, 매일 게임에 접속하여 있거나, 밤 새워 도박을 즐기거나 하는 모습들이다. 이보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현대인들은 심각한 자기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

<sup>5</sup> Rollo May, *자아를 잃어 버린 현대인* (서울:문예출판사, 1974), 11.

자기 소외는 일탈과 같이 심각한 현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상적인 삶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소극적 행위를 포함한다. 평소 해야할 일정들을 뒤로 미루어 놓은 채, 하루 종일 잠을 자거나 TV를 시청하는 행위도 자기 소외의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일상을 탈피하여 떠나는 여행도 넓은 의미에서는 자기 소외에서 비롯된 일탈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된 적극적 의미의 일탈은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칠 수 있으나, 뒤에서 언급한 소극적 의미의 일탈은 삶에서 자기 소외를 완화 또는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종교적 소외

제도적 소외나 관계적 소외는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소외라면, 종교적 소외는 초월적 존재(하나님)와의 단절에서 오는 소외를 말한다. 이는 죄와 연관이 있다.

마르크스에 의한 종교적 소외의 개념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 기독교 윤리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다. 그의 소외 개념은 자신을 억제하고 욕욕(肉慾)을 절제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지는 극히 피상적인 소외론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자제하는 것이 그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인간을 소외로 이끌고 나간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만큼 그 자신이 비참해지고, 종교를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질적이 되어버리며 인간적으로 소외를 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초월성을 주장하는 만큼 인간은 현실에서 소외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종교는 초월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면서, 현

실의 물질적인 적은 죽이기 때문이다.<sup>6</sup>마르크스의 주장을 다룬 이유는 본 논문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설문과 분석을 토대로 소외 현상을 연구하기 때문이다. 목회자(성직자)와 성도 개인과의 간극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목회자가 초월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면 성도 개인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평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성도 개인들은 목회자(성직자)가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소외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자(성직자)는 초월적 대상을 강조하지만, 성도 개인들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 접촉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종교인들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행복에서 삭제된 불행한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에 의하여 창조하지 못해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 자신을 구하는 한 방법으로 종교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7</sup>

그러나 마르크스는 종교가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믿었으나, 실체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현실 삶에서 인간으로서 해결 가능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종교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 내지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초월적 존재의 뜻으로 이해함으로 극복하려고 한다. 21세기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들이 종교적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수요가 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도 마르크스의 이론이 극히 일부분에서만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의 종교적 소외 이론과는 다른 현상들도 나타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인간의 종교적 수요를 인정하면서도 종교를 중요한 삶의 요소로 인정하기 보다는

---

<sup>6</sup>박도식, “K.마르크스의 종교이론(終),” 50 *신학전망*(1980년), 155-160.

<sup>7</sup>Ibid.

오히려 악세사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현상이다. 현대에 와서 많은 신앙인들은 종교를 악세사리 정도로 취급한다. 그리하여 그 본질적인 역할을 잃어버리는 종교적 소외현상이 발견된다. 이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그 종교의 의미가 생활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비신앙적 태도에서 발생한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종교의 가치가 결여된 신앙인에게 있어 그 신앙은 무의미하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종교적인 소외현상은 종교의 핵심을 잃은 채 선조들이 물려준 전통에 따라 수동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의식만을 느끼며 동시에 의미없는 의무감과 생활의 제한만을 가지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다. 즉 신앙을 가진 이들이 실제의 사회생활에서 신앙이 없는 비신앙인과 같은 가치관으로, 그리고 그 같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살고 있는 데에서 발생한다.<sup>8</sup>

마르크스의 종교적 소외 이론보다는 박도식의 종교적 소외 이론을 토대로 인간은 스스로 종교에 대한 주요성을 간과하여 점차 종교의 색채를 흐리게 하여 사회에서 적응하려고 하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소외 현상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 진다.

#### 암묵적(暗默的) 소외

암묵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사를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암묵적 소외라는 것은 자기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소외를 말한다. 즉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소외의 현상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제도적 소외, 관계적 소외, 자기 소외, 종교적 소외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직접·간접적으로 외부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소외

---

<sup>8</sup> 박도식, “인간소외에 관한 소고,” 70 사뭇(1980년), 91-92.



를 말한다. 소외의 현상이 외부로 직접·간접적으로 표현되면, 그 현상이 나타는 공동체 혹은 사회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와 사회가 건강하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와 사회는 그것을 외부로 직접·간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기 마련이다.

한 교회를 중심으로 소외의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논문이 없거나 적은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선 소외의 현상이 문제가 있는 일부에만 나타는 현상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소외라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외가 보편적이고 누구나가 겪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침묵할 이유가 없다. 많은 논문들의 주제로 소외 당하는 계층에 대한 목회를 다루고 있다. 대부분은 소외 계층을 위해 그것을 완화 또는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교회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소외 계층(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만이 소외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소외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소외의 대상이기도 하고 소외 시키는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저자가 출석하고 있는 안동교회도 이러한 논문을 위해서 설문을 시행 한 경험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가 논문을 위한 설문을 허락한 이유는 여전히 안동교회가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임을 자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들이 소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치부(恥部)로 여겨지던 소외라는 주제가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현상이며, 또한 완화 또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더욱 건강한 소통의 구조를 가지는 교회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암묵적 소외의 예를 들자면, 저자가 출석하는 교회는 108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 또한 낙후되어 있다.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건물에는 여러

편의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주요 집회들은 오래된 본당에서 열린다. 그러다 보니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건물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는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은 ‘화장실이 어디있느냐?’이다. 어떤 건물은 친절하게도 묻지 않아도 화장실을 찾아가기 쉽게 만들거나 안내판이 눈에 띄도록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저자가 출석하는 교회는 구(舊)건물에는 화장실이 없다. 새롭게 지어진 옆의 건물로 가야만 한다. 원래 교인들은 그것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처음 교회를 방문한 분들도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옴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소외감으로 경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여러 사람들을 소외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 동안 암묵적으로 소외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예가 교회 내에서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제도적 차이와 환경적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기존 성도들과 새롭게 교인이 된 성도들과의 이질감에서 오는 소외감, 삶의 일상에서 분주해서 종교적 열심이 사라지는 종교적 소외감 등 교회 내에서 암묵적으로 일어나는 소외는 여러 가지이다. 그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그것을 몇 가지 유형으로 묶어서 연구한다면, 교회가 소외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소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인간 소외의 통(通)<sup>9</sup>성경적 이해

성경은 인간 소외에 대한 부분을 중요한 화두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그분의 사역을 이어갔던 제자들에게도 인간 소외는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였음에 분명하다. 인간 소외의 문제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여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롬12:5)이라는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불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인간 소외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으며, 극복의 사례까지 소개되어 있다. 특히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인간의 소외 문제, 당파(파벌)로 인하여 생기는 인간의 소외 문제가 대표적이다.

###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인간 소외

먼저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인간 소외 문제는 빌레몬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신분 체제가 무너진 지 오래이지만, 빌레몬서의 시대배경인 로마 제국은 귀족과 평민에게는 시민권과 보호를 보장하는 반면, 노예들에게는 본질적으로 결코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명제에 누구든 쉽게 동의하지만, 당시에는 노예제도의 존속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재고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큰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노예 몇 명은 반드시 두고 살았고, 전쟁을 통해 로마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노예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갔다. 당시 로마가 온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엔, 제국 내 노예의 수가 6천만 명에 달했다.<sup>10</sup>

<sup>9</sup>조병호 박사가 말하는 통(通)이란 서로 다른 영역이나 방식, 관점이나 입장을 우선 그 각각으로 이해하고, 이어서 그러한 다름의 사이에서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 마침내 총체적 인식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을 발생시키는 사고방식이다.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2), 44-45.

<sup>10</sup>Ibid., 228.

빌레몬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주인인 빌레몬과 노예의 신분인 오네시모이다. 오네시모는 자기 삶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채울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갇혀 있었다. 노예의 신분으로 도망을 했다가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당시의 엄격한 법 때문에 오네시모는 적지 않은 갈등을 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 도망쳤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과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 들이게 된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다. 다행히도 빌레몬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였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진정한 자유의 길을 열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당부하였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다. 신분의 차이로 인해 생긴 인간 소외의 현상을 극복한 사례이다. 단순히 도망한 죄를 덮어 달라거나, 혹은 노예의 신분을 벗겨 달라는 정도의 당부가 아니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당부였다.

로마 제국 내에서 노예제도, 신분제도라는 철옹성은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경계였다. 도망 나간 종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당시 6천만 명이나 되는 종들이 로마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도망 나간 종을 처벌하는 일에 모든 사회적 힘을 이용해 지지했다.<sup>11</sup>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분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강조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이 형제가 되는, 그 신분 제도의 경계를 허물자고 선포한 것이다.

---

<sup>11</sup>Ibid., 231.

### 파벌(당파)로 인한 인간 소외

유대인들 사이에는 여러 파벌과 분파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등장한다. 배식 문제로 인한 갈등, 일곱 일꾼을 세우는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촉발시켰던 배경이 이 파벌 문제이다. 또한 이방교회였던 빌립보교회에도 유오디아파와 순두게파가 있었고, 고린도교회에는 더 심한 분파 문제가 있었다.<sup>12</sup> 이러한 파벌로 인한 문제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문제였음에 분명하다.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였다. 그들은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배식 문제를 일곱 집사를 선택하여 공평하게 조정함으로써, 바울의 두 여성 동역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게의 갈등은 두 여인을 동시에 칭찬하며 그녀들을 도울 것을 요청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격려함으로써 화해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고린도교회에 등장한 파벌(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바울은 편지를 통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전1:10)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였다.

---

<sup>12</sup>Ibid., 212-213.

## 제 III장

### 인간 소외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신학적 이해

#### 인간 소외의 심리학적 이해

에릭 프롬(E.Fromm)에게 있어서 소외는 오늘날의 사회적 성격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이다. 에릭 프롬의 소외에 관한 이론은 ‘건전한 사회’라는 그의 저술에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릭 프롬이 이해하는 소외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what it should it) 그렇지 못할 때 주로 나타난다.<sup>1</sup> 에릭 프롬의 소외의 개념은 이미 헤겔과 마르크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개념이다. 그들에 의해서 정립된 소외의 개념을 현대에 다시 등장시켜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소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외란 인간이 그 자신을 자신과 다른 존재로서 경험하는 한 유형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를 인간이 그 자신으로부터 소원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그의 세계의 중심으로서, 그의 행위의 창조자로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의 행위와 그 결과가 그가 복종하고 심지어는 숭배까지 하지 않으면 안될 그의 주인이 되어 버렸다. 소외된 인간은 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듯이 그 자신으로부터도 떨어져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사물이 경험

---

<sup>1</sup>정문길, 소외 (서울:문학과 지성사, 1984), 118-121.

되듯이 경험한다.<sup>2</sup>

에릭 프롬에게 있어서 소외는 어떤 사태를 의미하기보다는 그것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결과, 즉 의식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험 상태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활동이나 그 결과가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자립적인 것이 됨으로써 마침내는 그것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태로 나타나는 마르크스의 소외와는 달리 의식 내부에서 나타나는 자기 소외를 강조하고 있다.<sup>3</sup>

에릭 프롬에게 있어서 소외의 주체는 인간이며, 이 인간은 ‘인간 일반(man in general)’ 이거나 ‘인간 그 자체(man as such)’ 를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프롬에게 있어서 소외의 주체는 ‘무엇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 그렇지 못하다’ 라고 표현할 때의 ‘그 무엇’ 모두를 의미한다.<sup>4</sup> 여기서 ‘그 무엇’ 은 모든 인간, 인간 일반이나 사회, 노동, 사물 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체에 의한 소외의 상태<sup>5</sup> 는 우상숭배나 맹목적인 숭배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소외는 일이나 물건, 또는 국가, 동료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까지 나타난다.

에릭 프롬에게 있어서 소외현상은 다음의 몇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치로부터의 소외이다. 정치 생활에서 현대인들은 전시대가 확보해 놓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물론 이를 충분히 확보해 주는 물질적 안락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민(公民)으로서의 시민적 기쁨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인들의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책임감 감소, 효과

---

<sup>2</sup>E. Fromm, *The Sane Society*, 김병익 역, *건전한 사회*(서울: 범우사, 1975), 114.

<sup>3</sup>Ibid., 115.

<sup>4</sup>정문길, *소외*, 183-183.

<sup>5</sup>Fromm, *The Sane Society*, 118.

적인 의지의 부재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그들의 죄의식을 보상해주고 안전을 확보해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또는 특정한 국가, 법률, 질서, 지도자에게도 쉽사리 동조하는 권위주의적 도피를 일삼게 된다. 그러므로 부정과 회의의 능력을 상실한 하나의 자동인형적 인간으로 소외된다.<sup>6</sup>

둘째, 종교로부터의 소외이다. 현대인들의 종교생활에서도 소외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원래 종교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인간이 우주 속에서 갖는 인간 존재의 특수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이 종교적 욕구는 돈, 권력, 성공, 지위 등과 같은 세속적 목적으로 광신적으로 추구하는 우상숭배나 조상의 숭배와 같은 원시적인 종교형태로 퇴행하고 있으며, 일신교적 종교까지도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권위주의적 종교로 전환되고 있다. 즉 프롬의 지적은 현대인들이 신을 기계나 능률의 개념으로 상품화하고 있다는 것이다.<sup>7</sup>

셋째, 조직으로부터의 소외이다. 오늘날의 사회조직이나 구조는 대규모적으로 집중되어 관료제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관리와 유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 체계가 점점 전문화되어가고 있고, 이 안에서 인간은 로봇처럼 조작되는 조직인으로 전락해 버려, 창의와 개성이 말살되는 가운데 소외되고 있다.<sup>8</sup>

넷째, 사회·경제적(노동과 소비) 소외이다. 현대인들의 노동은 능동적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의 목적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 버렸다. 또한 인간의 노동은 상품화 되었고, 인간은 기계의 주인이 아닌 기계의 한 부분,

---

<sup>6</sup>Fritz Pappenheim, *The Alienation of Mordern Man: An Interpretation Based on Marx and Tönnis*, 진덕규 역, *현대인과 소외*(서울: 학문과 지성사, 1987), 82.

<sup>7</sup>Fromm, *The Sane Society*, 116.

<sup>8</sup>E. Fromm, *The Revolution of Hope*. 최순혁 역, *희망의 혁명*(서울: 서음출판사, 1983), 153.



또는 기계가 수행할 수 없는 행위를 수행하는 기계의 대용물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에 대한 권태(倦怠)와 적의(敵意)라는 결과로 소외를 경험한다는 것이 프롬의 지적이다.<sup>9</sup> 노동에 대한 이러한 소동적 자세는 소비의 영역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소비는 행복을 위한 수단이나 인격적 행위로서의 하나의 권리가기보다 강압적인 의무로서 작용하고 있다. 프롬에 의하면 소비는 “그것의 모든 욕망은 즉각 충족되어야 하며, 어떤 욕구도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좌절(非挫折)의 원리와 결합되어 현대인을 인간적으로는 무력하나 소비자로서는 절대적인 소비적 인간(Homo Consumens)으로 변모시킨다.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사용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인간 욕구의 소외에 직면한다.<sup>10</sup>

에릭 프롬은 마르크스의 소외개념을 그대로 포용하여 현대산업사회에 적용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마르크스가 주장한 특정한 계급에서만 소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집단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 인간 소외의 사회학적 이해

인간 소외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시맨(M. Seeman)의 소외론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기로 하자.

시맨은 소외를 사회 안에서의 행위자의 개인적 입장을 경험적 연구로 분석함으로써 이제까지의 지적, 또는 인간주의적 영역과는 다른 입장에서 사회학적 소외 이론을 구축하여 이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시맨은 그의 소외 이론

---

<sup>9</sup>Ibid., 172-174.

<sup>10</sup>Ibid.

의 출발을 대중사회<sup>11</sup>이론에 두고, 현대 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5가지의 역사적 경향을 중심으로 소외 이론을 전개한다.<sup>12</sup>

그에 의하면 사회의 구조적 경향은, 첫째, 혈연관계의 중요성이 상실되면서 익명성(匿名性)과 비인격화(非人格化)로 변하고 있다. 둘째, 전통적인 사회 형태가 세속화, 합리화됨으로써 조직형태에서는 관료제로, 기술적 형태에서는 기계화, 표준화로,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는 신념과 가치의 세속적인 합리적 형태로 변하고 있다. 셋째, 사회의 동질성(同質性)이 인간과 제도가 전문화됨으로써 생겨난 사회적 분화라는 이질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넷째, 안정보다는 기동성(機動性)의 증가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공간적·사회적 기동성이 지역적 연대관계나 대인간의 직접적인 유대관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섯째, 규모가 점점 커지고 확대된다. 통신, 수송, 정치 등의 활동에 근거하여 사회전체가 대규모화되어 가고 대기업, 도시 및 국가 등의 결정이 인구에 비례하여 선택된다.<sup>13</sup>

시몬에 의하면 소외의 형태는 그 자신의 행위가 개인적·사회적 보상이 생기도록 통제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서의 무력감(無力感, powerlessness), 자기 행동의 장래성에 대한 만족할 만한 예측이 내려질 수 없다는

---

<sup>11</sup>대중사회(mass society)는 근대 시민 사회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회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자유 방임적, 개인주의적 자본주의가 성숙된 독점 자본주의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등장한 사회이다. 18세기 중엽 이후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산업화가 시작되고, 19세기 들어 공장화, 도시화, 관료제화 등의 산업사회의 여러 특징들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1차 집단이 약화 내지 몰락하면서 ‘대중’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이 탄생하게 되었다. 대중사회는 이들 ‘대중’이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의 주역이 되면서 형성되었다. 여기서 대중은 어떤 조직된 집단이나 계급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은 많은 수의 사람, 즉 미분화되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인간들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대중사회의 구성원들의 특징으로서, 심리적으로는 개인의 활동영역이 증가되어 개성(individuality)이 두드러졌지만, 개성이 증가된 만큼 불안과 소외 및 고독을 느끼게 되고, 행동면에서는 범이나 유행을 따르게 되어 획일화·평균화된 행동을 하게 되며, 구조면에서는 여러 계층의 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조직이 없게 된다. 안계춘 외, *현대사회학의 이해*(서울: 범문사, 1993), 446-453.

<sup>12</sup>정문길, *소외*, 206-207.

<sup>13</sup>Ibid., 207.

낮은 기대감으로서의 무의미성(無意味性, meaninglessness), 또는 목표상실감, 사회적으로 승인 받지 못하는 행동들이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높은 기대감으로서의 무규범성(無規範性, normlessness), 거부 및 거절의 감정으로 포용이나 사회적 수용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서의 사회적 고립,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에 대한 개인의 거부로 나타나는 가치상의 고립, 또는 문화적 소외, 자기 행동의 보상을 얻기 위해 그 자신을 도구화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경험하는 자기소외(自己疎遠, self-estrangement) 등이 있다.

시맨은 소외의 현재적 상황을 설명하고, 대중 사회의 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 소외 형태를 기대감과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박도식은 현대 사회에서 겪는 현대인의 소외현상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문화적 소외현상이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역사를 창조하며 특히 역사 속에서 문화의 주인공들이다. 인간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문화’라는 정신적 소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문화의 범위는 여러 가지로 폭이 넓다. 철학, 종교, 예술, 역사, 문학 등 그 범위는 다양하다. 문화적 소외현상은 우리가 처해 있는 문화권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가 문화와 부합되지 않는 이질성에 근거한다. 즉, 문화의 이념과 절대 규범이 현실적인 인간의 삶을 억압, 부정하는 상태를 소위 문화적 소외라고 한다. 이는 특정 개인이 기성 사회의 공적인 가치를 거부한 결과에서 생기는 현상에서 살펴볼 수 있다.<sup>14</sup>

둘째, 정치적 소외현상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본질적 특성인 사회성을 가진 인간은 정치와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정치적인 인간소외의 문제는

---

<sup>14</sup>박도식, “인간소외에 관한 소고,” 87-88.

법, 국가, 시민생활과 연결된다. 이는 법의 절대화, 국가의 이상화, 시민 생활의 기계화에서 그 문제가 발단된다. 법이 절대화되면 그러한 법률 아래에서, 인간은 한낱 물건처럼 취급되고, 국가가 이상화되면 인간은 국가 그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에 대한 숭배와 복종으로부터 소외를 느끼게 된다. 또한 시민생활이 엄격히 규율화 되면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은 억압된 무자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인간의 소외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발생한다.<sup>15</sup> 정치적 소외의 유형<sup>16</sup>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정치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데에서 생기는 정치적 무력감(political powerlessness), 정치적 제 결정이 좀처럼 예측할 수 없고, 그 선택에 있어서 의의와 유효성을 상실한 데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무의미감(political meaninglessness), 정치적 제 관계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규범이나 규칙이 붕괴됨으로써, 일탈행동이 널리 일반화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데에서 생기는 정치적 무규범성(political normlessness), 사회의 사람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고 있는 정치적 규범이나 목표를 거부하여 생기는 정치적 고립감(political isolation)이다.

이러한 정치적 소외의 현상은 정치가들의 비윤리적 태도와 공약 불이행, 정치가 자신의 신념 상실과 타협, 그리고 무기력 등으로 발생하며, 정치적 소외가 만연될 때에는 시민정신 상실, 사회규범과 도덕의 붕괴, 사회복지에 대한 무관심과 법적 질서에 대한 무시 등을 조장하여 사회를 몰락케 한다. 이 정치적인 소외현상을 극복하는 데는 인간의 인간화, 권리의 균등화, 인간의 자유화에 의한 정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간 삶을 위한 방법과 도구로서의 정치 이데올로기 정립과 적용도

---

<sup>15</sup>Ibid., 89-90.

<sup>16</sup>박창희, *갈등과 소외*(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89), 213.

절대적으로 필요하다.<sup>17</sup>

셋째, 경제적 소외현상이다. 경제란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물질적 재화를 뜻한다. 생존하기 위해 인간은 먹어야 하고 입을 써야 하고, 거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생활의 필수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동문제는 필연적으로 대두된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문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동시에 뜻한다.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노동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 노동에서 야기되는 노동의 소외가 경제적 소외의 핵심을 이룬다. 자기에게 적합한 노동을 얻지 못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로 노동의 길이 막혔을 때, 그리고 노동이 주는 대가가 그 노동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한 정당하게 교환되는 교환정의가 결여되어 있을 때, 일차적으로 인간은 경제적인 소외현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노동을 통한 경제적인 소외현상은 노동이 단순히 호구지책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고 인간의 자유로운 능력의 표현이며 인류 공동복지에 기여한다는 신성한 가치를 깨닫고, 또 그것이 그만한 가치로 평가될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교환정의가 확립되도 필수적인 요소이다.<sup>18</sup>

넷째, 기술과 기계에 의한 소외현상이다. 기술은 근세 이후 인구의 팽창과 도시집단사회로 인하여 대중이 원하는 삶의 충족을 채워주기 위해 합리적인 수단으로 등장한 물질문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술이 만들어 내는 기계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며 새로운 생활양식을 유도한다. 현대인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 생산과정의 모든 단계가 기계화 내지는 자동화됨으로써 인간은 직접적인 노동 영역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되었고, 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은 지구촌을 한 운명공동체로 바꾸어 놓았으며,

---

<sup>17</sup>Pappenheim, *The Alienation of Mordern Man*, 45-61.

<sup>18</sup>박도식, "인간소외에 관한 소고," 90-91.

자연세계의 탐구와 여러 인간학적 학문의 발전으로 현대인들은 개선된 생활 조건하에서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기계를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사회적인 수준이 평가되고, 생활의 수준이 좌우되는 기계문명의 시대이다. 기술적 진보가 인간의 진보와 동일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학과 기계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도 산업사회는 자연의 균형을 잃게 하며 환경파괴를 유발시키고, 더욱이 그것의 비도덕적 사용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과 인명에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그것의 의도적 악용으로 인하여 인간을 억압하고, 위협하며, 급기야는 인간의 생명과 인류문화의 업적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현대에 와서는 인간이 기술을 통하여 만든 기계가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이념화되어 오늘의 기술과 기계는 인간의 삶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기술의 매카니즘이 갖는 기계적 성격, 비인간적 성격, 그리고 집단적 성격은 인간을 비인간화로 이끌어가면서 인간의 고귀한 주체성을 앗아가고 있다는 데에서 인간은 기술과 기계 앞에서 자신의 소외현상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도덕·윤리문제를 비롯한 새로운 소외현상을 빚어내고 있다.<sup>19</sup>

다섯째, 종교적 소외현상이다. 현대에 와서 많은 신앙인들은 종교를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한다. 그리하여 그 본질적인 역할을 잃어버리는 종교적 소외현상이 발견된다. 이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그 종교의 의미가 생활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비신앙적 태도에서 발생한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종교의 가치가 결여된 신앙인에게 있어 그 신앙은 무의미하다. 인간의 종교적인 소외현상은 종교의 핵심을 잃은 채 선조들이 물려준 전통에 따라 수동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

<sup>19</sup>박창희, *갈등과 소외*, 249-256.

동시에 의미 없는 의무감과 생활의 제한만을 가지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다. 즉 신앙을 가진 이들이 실제의 사회생활에서 신앙이 없는 비신앙인과 같은 가치관으로, 그리고 그 같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살고 있는 데에서 발생한다.<sup>20</sup>

### 인간 소외의 신학적 이해- 창조와 타락

인간 소외를 신학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에서 보는 일탈을 타락이나 죄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타락이나 죄는 초월적 존재(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폴 틸리히(P. Tillich)는 실존이 본질로부터 타락되었다는 실존주의자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인간상황의 일반적 상징으로서 타락을 취급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타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질로부터 실존으로의 전이(轉移: transition from essence to existence)가 타락이라고 한다.<sup>21</sup>

틸리히는 ‘죄란 무엇인가?’ , ‘소외 속에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를 이해하기 위하여 아담의 타락의 기사를 해석한다.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의 기사 해석이 그의 죄론 또는 ‘실존으로서의 인간’ 을 이해하는 길이다.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말할 때에 어떤 형이상학이나 도덕적 개념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본다. 따라서 틸리히는 죄의 기원과 본질을 어떤 인간학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성서의 테스트, 인간의 창조와 역사, ‘아담의 범죄와 타락의 이야기’ 에서 찾는다.<sup>22</sup> 그는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전이의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1-

<sup>20</sup>Ibid., 91-92.

<sup>21</sup>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29.

<sup>22</sup>Ibid., 29.

3장을 신화로 해석하므로 심오하고 풍부한 표현을 제공한다.

폴 틸리히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타락설화를 물론 문학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는 그 타락의 이야기는 현실적인 인간 실존상황을 상징적으로 해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sup>23</sup>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는가? 타락의 원인과 가능성과 현실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깊은 기독교적 인간학의 핵심이 타락의 이야기 속에 들어 있다. 틸리히는 창세기의 타락설화를 인간과 세계가 어떻게 본질적 상태에서부터 실존적 상태로 옮겨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이야기라고 본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는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단 한번 일어났던 최초 인간의 타락한 날의 일기장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틸리히는 그 이야기를 비신화화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전이(轉移)에는 시간적 요소가 함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설화를 완전히 비신화화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전이는 필연적이거나 기계적인 일이 아니고 결단과 선택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타락설화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고 모든 인간 실존의 현실 이야기이다.<sup>24</sup> 그의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전이’ (transition from essence to existence)라는 표현은 낙원상태에서 천진난만한 행복한 삶을 누리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에덴이 동쪽으로 추방되는 타락설화에 대한 의미를 실존철학적 용어로 해석한 종교적 신화의 의미번역이다.<sup>25</sup>

그는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전이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창세기 타락설화를 네 가지 단계 및 계기로 분석한다. 여기에서 틸리히는 첫째는 타락의 가능성에 대하여, 둘째는 그 동기에 대하여, 셋째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하여, 넷

---

<sup>23</sup> Ibid., 33.

<sup>24</sup> 김경재, *폴틸리히의 생애와 사상*(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273-274.

<sup>25</sup> 김경재, *폴틸리히 신학연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275.



제는 그 결과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 타락의 가능성

기독교 타락설화에서 타락의 원인은 그 가능성이 밖에서 오지 않고 안에서 온다.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저급한 그 어떤 요소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가장 고귀한 요소에서부터 온다. 틸리히에 의하면 타락의 가능성으로서 인간의 유한한 자유(finite freedom)를 들고 있다. 즉 인간의 유한한 자유 때문에 타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sup>26</sup>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자연을 엄연한 법칙성과 필연성의 세계라 한다면 신(神)은 절대자유이지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유한한 자유이다. 인간의 자유는 그 상대적 개념인 숙명적 제약(destiny)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되지도 않으며 이해되지도 않는 개념이다. 틸리히에 의하면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전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유한한 자유라고 말한다.<sup>27</sup>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 속성은 인간의 언어에 잘 나타나 있다. 언어에 의해서 보편적 개념을 창조하고 실재의 차원을 뚫고 들어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자유하므로 무조건적, 도덕적, 논리적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예술과 과학적 창조를 할 수 있다.<sup>28</sup>

인간은 자유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본성에 대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그의 인간성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자유까지 갖는다.<sup>29</sup> 인간의 자유란 운명과의 양극성 속에서 나타난다. 인간은 유한한 자유를 가졌기 때

<sup>26</sup>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 31.

<sup>27</sup> Ibid., 32.

<sup>28</sup>황승룡, *풀 틸리히의 그리스도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105-110.

<sup>29</sup>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 32.

문에 자유와 운명은 서로 제한하고 있다. 인간이 그의 자유를 부정하려는 자유까지도 운명에 의해서 제한된다. 본질에서 실존에로의 옮김이 가능한 것은, 유한한 자유가 우주적 운명의 구조 속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톨리히가 주장한 타락의 가능성은 인간 자유의 불행한 측면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동일시된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타락의 가능성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만이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이러한 가능성이 없었다면, 인간은 단지 사물에 지나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을 것이다.<sup>30</sup>

#### 타락의 동기

타락의 동기(motives)는 유한한 자유가 지닌 불안정성, 불안, 제약성을 극복하여 본질상태가 지닌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려는 생명의 각성된 자유의 충동에서 온다. 톨리히는 타락의 동기를 키에르케고르의 심리학적 용어인 ‘꿈꾸는 천진난만한 상태’ (꿈의 결백, 순진무구, dreaming innocence)로 유추하고 있다.<sup>31</sup> 이 상태는 현실적 실존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현실성이 아닌 가능성이다. 꿈이란 순전히 가능성의 상태를 뜻하며, 무죄(innocence)라는 말도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성의 세계를 뜻한다. 사람이 무죄하다는 것은 현실적 경험과 인격적 책임성, 그리고 도덕적 범죄가 없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dreaming innocence’란 현실 이전, 역사 이전, 실존 이전의 상태를 뜻한다.<sup>32</sup>

그러나 이러한 천진난만한 꿈꾸는 상태는 유혹(temptation)으로 인하여 자신

---

<sup>30</sup>Ibid.

<sup>31</sup>Ibid.

<sup>32</sup>Ibid.

을 밖으로 끌어낸다. 이 유혹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데, 톨리히는 인간의 유한한 자유 속에 스며드는 존재론적 불안(anxiety)으로 이것을 설명한다. 즉, 인간의 유한한 자유는 유한성에 대한 자의식과 불안을 동반한다.<sup>33</sup>

타락설화는 그림언어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과 ‘뱀의 유혹’으로 상징되고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곧 선과 악이 구별되는 의식된 자아, 실현된 자유, 주체적 판단과 책임성과 현실경험을 하고 싶다는 천진난만한 상태의 유한한 자유가 눈을 떴다는 것이다. 뱀의 유혹은 항상 신비하다. 뱀은 유혹자이다. 유혹자 뱀은 아담과 이브 밖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라 아담과 이브의 마음의 에덴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유혹의 각성된 자각이다. 유한한 자유의 불안정성과 불안을 극복하고 자유의 권리를 사용하고 실천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같은 경지의 존재’가 괴도가 하는 열망(eros)과 교만(hubris)으로부터 유혹은 온다. 타락의 직접 동기는 불안정한 유한한 자유를 절대안정과 무한자유로 변형시켜 자신을 존재의 중심자, 존재의 주인으로 자처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은 에덴의 반란에서 온다. 기독교는 이 점에서 항상 죄는 의지의 반란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고 자기 자신이 곧 생명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행위(unbelief)이며, 다른 모든 존재자들을 자기를 위해 봉사하라고 요청하고 부리며 지배하려는 무한한 탐욕(concupiscence)이며, 자신의 유한한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무한 절대화하려는 생명의 자기절대화, 자기 스스로의 높임(hubris)이라고 본다.<sup>34</sup>

#### 타락의 사건 자체

---

<sup>33</sup>Ibid.

<sup>34</sup>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 44-45.

타락의 과정은 아담과 이브, 아담과 자연의 전영역에서 나타난다. 타락의 사건은 인간의 정신세계, 영혼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전인적 존재요,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므로 그의 득병(得病)은 전인적 존재와 주위환경을 오염시킨다. 눈이 떠진 자유, 각성된 자유(aroused freedom)는 자신의 유한한 자유의 힘과 권력을 행사하여 현실성을 체험함으로써 천진난만성의 상태를 포기하든지, 유한한 자유의 힘과 권력 행사를 유보, 포기한 채 천진난만성을 지속함으로써 삶의 현실성 체험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sup>35</sup> 이것이 성서의 이야기에서는, 자기의 가능한 자유를 현실화하려고 하고, 슬기와 힘을 획득하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금기로 상징되고 있다.<sup>36</sup>

창세기의 타락 설화는 타락 이전에 중요한 한 모티브(motive)를 등장시키고 있다. 그것은 신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기명령을 주었다는 것이다. 폴 틸리히에 의하면 신의 이 금기명령은 이미 신과 아담·이브, 본질과 실존,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한다. 구체적으로 금기명령은 천진난만한 무흠상태를 보존하려는 무의식적 반작용, 곧 거부반응이다. 이 거부반응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기명령으로 상징화되어 있다. 이 반작용은 잠재·가능적 상태의 존재가 잠재적 자유를 현실화시킴으로써 구체적 지식을 얻고, 구체적으로 생명을 독립시켜 홀로 자립해서 서려는 의지와 충돌하고 갈등한다. 여기서 인간은 이중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는데, 즉 그 자신과 가능성을 현실화하므로 꿈꾸는 무죄의 상태를 잃을 것인가 또는 유한한 자유를 포기하거나 유보하므로 꿈꾸는 무죄상태를 견지할 것인가의 두 사이에서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된다.<sup>37</sup>

<sup>35</sup>김경재, *폴틸리히 신학연구*, 278.

<sup>36</sup>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 35-36.

<sup>37</sup>Ibid.

결국 유한한 자유자는 자기를 실현하려는 의지 쪽을 선택하므로 ‘dreaming innocence’의 상태를 깨뜨린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 먹은 상징이다. 여기에서 천진난만의 꿈꾸는 순진무구상태는 의식의 각성된 현실상태 곧 실존으로 전환된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이다. 곧 분별지식과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의식의 세계에 그들의 삶의 중심점이 이동된 것이다. 폴 틸리히에 의하면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전이는, 직접적이고 시간선상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맨 처음의 사건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의 보편적 현상이요, 그것의 질(quality)이다. 그러므로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전이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운명의 성격과 함께, 유한한 자유자가 책임져야 하는 결단적 성격과 도덕적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사건이다.<sup>38</sup> 기독교의 원죄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인간존재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숙명적이고, 비극적인 소외현상을 종교적 언어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sup>39</sup>

#### 타락의 결과

폴 틸리히에 의하면 타락이 비록 우주적, 보편적 사건이기는 하지만 인간을 통해서만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비록 인간은 유한한 자유를 가졌지만, 실재의 모든 차원이 그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타락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sup>40</sup>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이동은 결국 소외를 초래한다. 즉 타락의 결과가 곧 소외이다. 소외가 곧 죄악이며, 죄악이 곧 실존상태이다. 실존은 마침내 자기 자신의 독립된 왕국을 확보함으로써 인해, 자기 존재의 근원인 존재 자체로부터, 이웃과 자연

---

<sup>38</sup>Ibid., 36-37.

<sup>39</sup>김경재, *폴틸리히의 생애와 사상*, 278.

<sup>40</sup>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 39-40.

으로 상징되는 ‘너’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본래의 얼굴, 본래의 상태, 곧 영원한 순수의 상태와 가능성의 상태였던 원초적인 자기로부터 소외 분리되고 만다.<sup>41</sup> 인간이 실존한다 함은 본질적인 상태, 곧 그가 진실로 있어야 했던 자리와 되어야 할 그 존재의 자리에서 이탈되었음을 뜻한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는 신의 부름을 듣고 아담과 이브는 숲속으로 숨는다. 아담·이브·뱀은 서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유혹의 책임을 전가한다. 아담·이브는 이미 순수성을 잃고 수치심을 느끼며 몸을 가리운다. 도덕(道德)과 예(禮)란 인간의 근본적인 가리움인 것이다. 자연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을 맛보아야 하며, 영원히 돌아올 수 없도록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고 화염검으로 차단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폴 틸리히에 있어서 인간실존의 핵심은 유한한 자유(하나님의형상)이며, 소외로서의 타락은 본질적 상태로부터 실존적 상태에로의 이동임이 밝혀졌다. 타락은 인간의 약점과 나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만이 갖는 위대성 때문에 역설적으로 타락하고 인간소외가 발생한다.<sup>42</sup>

### 인간 소외의 신학적 이해- 소외와 죄

앞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틸리히는 본질에서 실존에로의 전이가 소외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실존의 생태가 곧 소외의 상태라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존재의 근거(神), 다른 존재, 그리고 자기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질에서 실존에로의 이동은 개인적인 죄책감과 보편적으로 비극의 결과를 낳는다. 인간이 실존한다 함은 본질적 상태, 그가 진실로 있어야 했던 자리와 되어

---

<sup>41</sup>Ibid., 45.

<sup>42</sup>김경재, *폴틸리히 신학연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279.

야 할 존재의 자리에서 벗어났음을 뜻한다.<sup>43</sup> 폴 틸리히는 기독교의 죄를 인간 실존의 상징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소외(estrang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sup>44</sup>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실존하는 인간은 본질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 존재에서 소외된 것이라는 뜻이다.<sup>45</sup>

물론 소외라는 단어는 폴 틸리히가 처음 사용한 단어도 아니고, 성서적인 어원을 가진 단어도 아니다. 단지 폴 틸리히가 이 소외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 것은 인간 실존의 상황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단어로 간주했기 때문이다.<sup>46</sup>

이처럼 소외란 성서적 용어는 아니지만 인간의 비참성에 관한 대부분의 성서적 묘사에 암시되어 있다.<sup>47</sup> 에덴에서의 추방, 인간과 자연 사이의 적대감, 언어의 분열로 인한 민족과 민족간의 분리, 예언자들의 비판, 사도바울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왜곡의 실상에 대한 진술 등은 소외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존 상황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소외라는 말은 비성서적인 것이 아니다.<sup>48</sup> 그러나 소외라는 말을 죄악이라는 말로 대치할 수는 없다.<sup>49</sup> 폴 틸리히는 죄악에 대한 성서의 본래적 의미를 살려내기 위해 죄악이라는 말보다는 소외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성서적이라고 본 것이다.<sup>50</sup> 소외는 종교적 관점에서 죄악에 대한 그의 해석인데, 죄악의 여러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죄악이라는 말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죄악은

<sup>43</sup>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 45.

<sup>44</sup>박봉량, *신학의 해방*(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602.

<sup>45</sup>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 45-46.

<sup>46</sup>Ibid.

<sup>47</sup>Ibid.

<sup>48</sup>Ibid.

<sup>49</sup>황승룡,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론*, 90.

<sup>50</sup>Ibid.

소외의 비극적 범죄나 보편적 운명과는 대조적으로 인격적 결단과 책임의 성격을 강조하며, 인격적 자유와 죄책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그가 인간의 비참성을 표현하는 소외는 죄악으로서의 소외이다. 즉 소외는 종교적 관점에서 죄악의 재해석인 것이다.<sup>51</sup> 폴 틸리히는 인간 실존의 소외상태가 내포한 특징,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인간 실존의 소외상태, 곧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의 의미를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해석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불신앙(unbelief)과 교만(hubris)과 욕망(concupiscence)이다.<sup>52</sup>

#### 타락의 결과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은 죄를 하나님에 대한 ‘불신’, ‘욕망(concupiscence)’으로 규정한다. 틸리히는 여기에 교만(hubris), 또는 자기 높임의 정신적 죄악을 추가하여 ‘불신’, ‘교만’, ‘욕망’의 세 개념에서 이해한다. 인간의 본래적 존재로부터 소외됨으로 초래되는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 개념의 해석이 필요하다.

폴 틸리히에 의하면, 개신교에 있어서 ‘불신’은 인간이 그의 본래적 존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인간의 행동 또는 상태이다. 그의 실존적 자아 실현에서 인간은 자신과 자신의 세계로 향하고, 그리고 그의 존재와 그의 세계의 근거와의 본질적 통일을 잃는다. 이것은 개인적 책임성과 비극적 우주성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것은 하나의 동일한 행동 속에 있는 자유와 운명이다. 인간은 자신을 실재화함에 있어서 지시과 의지와 감정에 있어서 자신에게로 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sup>51</sup>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 46.

<sup>52</sup>Ibid., 47.



다.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적 참여의 상실이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질문들과 대답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인식적 통일의 상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불신은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인간의지의 분열이다.<sup>53</sup>

불신은 결과적으로 비사랑과 동일하다. 양자는 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본질적 통일의 파괴는 가장 깊은 죄악의 특징이다. 또한 그것은 신앙과 사랑에 있어서의 소외이다.<sup>54</sup>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가? 폴 틸리히에게 이 소외의 극복은 하나님과 자아의 재결합이다. 하나님과 소외된 자아의 이 재결합은 ‘화해’로 본다. 종교개혁자들은 소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화해와 그의 화해에 따라오는 사랑에 의해서 극복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소외라고 지시하는 말은 죄악의 종교적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다. 죄악은 인간의 교회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권위들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문제이다. 죄악은 종교적 개념이다. 그러나 종교적 맥락들에서 사용된 의미에서가 아니고 소외와 가능한 연합으로서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의미에서의 개념이다.<sup>55</sup>

즉 폴 틸리히에 의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불신앙이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본래적 존재에 등을 돌리는 행위와 상태를 말한다. 이는 인간이 그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위대성으로 향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실존적 자기 실현을 위해서 그 자신과 그의 세계로 향하기 때문에 그의 존재와 그의 세계의 근거로부터 본질적 결함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불신은 하나님의 인식적 참여의 붕괴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의 분리를 가져온다. 이는 곧 인간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으

---

<sup>53</sup>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 48.

<sup>54</sup>Ibid.

<sup>55</sup>Ibid.

로부터 소외된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불신을 통한 하나님과의 본질적 일체성의 붕괴가 죄악의 가장 깊고, 기본적인 성격이다.<sup>56</sup> 이 불신의 극복은 소외의 재결합이며 그것은 화해(reconciliation),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 화해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sup>57</sup>

#### 교만으로서의 소외

폴 틸리히에 의하면 교만(hubris)라는 말은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다. 폴 틸리히는 이것은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이브에게 한 뱀의 약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었다고 본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교만’ (hubris)은 인간이 자신을 신의 영역으로 높이는 것이다.<sup>58</sup>

즉 소외되어 있는 인간은 자기 중심이 본질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 결국 그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인간 자아의 높임이다.<sup>59</sup>

폴 틸리히는 이런 교만을 자기 높임(self-eleva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영적인 죄악으로서 다른 모든 형태의 죄악이 여기에서 유래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교만은 죄악의 여러 형태에 관한 한 가지 형태의 죄악이 아니라 죄의 전체형태이며, 불신앙의 다른 측면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기자신 또는 자아를 세계의 중심으로 삼는다. 이것이 영적인 죄가 되는 것이다.<sup>60</sup> 이러한 교만에 대한 주요한 증상들을 인류역사에서 찾아보면, 첫째는 무한의 영역에 대한 유한한 인간의 자기승화로

<sup>56</sup>Ibid., 49.

<sup>57</sup>Paul Tillich, *The New Being*, 강원룡 역, *새로운 존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40-41.

<sup>58</sup>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 50.

<sup>59</sup>Ibid.

<sup>60</sup>Ibid.

서 나타났고, 둘째는 부분적 진리를 궁극적 진리와 동일시 할 때 나타났다. 셋째는 제한된 선을 절대적인 선과 동일시하며, 넷째는 인간의 창조성을 신적 창조성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인류역사상 모든 문화의 분열과 타락이다. 이와 같은 교만은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교만을 통하여 집단에서도 나타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숨은 욕망이 있기에 인간은 그들의 자기평가와 자기긍정에서 행동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누구도 자신의 유한성과, 연약함과 오류와 무지함과 불완전성과 고독과 불안을 고백하려는 사람은 없다고 폴 틸리히는 말한다.<sup>61</sup>

#### 욕망으로서의 소외

인간의 실존적 자기긍정의 행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중심을 옮기는 것(불신), 다른 하나는 자기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교만)이다.<sup>62</sup> 이와 같은 경우에 왜 인간은 자아에게 중심을 두는 유혹을 가지느냐가 자연히 문제로 등장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런 욕망은 ‘concupiscence’ 이라고 했는데, 이는 자기자신 속에 진실채를 끌어 당기려는 무한한 욕망(the unlimited desire)을 말한다.<sup>63</sup>

존재의 능력과 지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중심을 가진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은 존재 충만성의 결핍을 느끼고 무한한 능력을 다시 얻으려는 충동과 갈증을 느끼게 된다. 떨어져 나온 존재의 지반과 합일하려는 욕구와 함께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자기 생명의 구심점속으로 끌어당겨 유한한 실존의 존재

---

<sup>61</sup>Ibid., 51.

<sup>62</sup>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 51.

<sup>63</sup>Ibid., 52.

결핍성과 불안정성을 보강, 보완하려는 무계약적인 욕망속으로 무의식적으로 빠져들어간다. 이것이 욕망으로서의 죄의 모습이다.<sup>64</sup>

폴 틸리히는 이러한 욕망이 성과 육체적 갈망, 권력과 지식, 물질적 부와 정신적 가치 등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 욕망으로서의 소외

폴 틸리히에 의하면 철학적 용어인 ‘소외’ 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곧 종교적으로 말하는 죄악이라는 말이 의미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본다. 죄악이란 도덕적 규범과 계명을 범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그 보다 그 이전에 더 근원적인 존재론적 이탈의 결과요, 그 열매라고 볼 수있다. 죄악은 분리, 곧 소외이므로 죄악의 극복은 소외 되었던 것을 다시 연합시키는 힘, 즉 사랑으로써만 극복된다.<sup>65</sup>고 보았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죄악을 원죄(originalsin)와 실제적인 죄(actualsin)로 구별하였다. 원죄란 아담의 불순종의 행위이고, 그리고 그 행위에서 모든 인간에게 생긴 죄의 성향(the sinful disposition)을 말한다. 그렇기에 원죄란 유전적 죄로 아담의 타락이 전 인류를 부패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폴 틸리히는 이런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인간의 보편적인 비참성을 아담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자유 행위와 결부시켜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시에 부조리하다는 것이다.<sup>66</sup> 이런 이해는 인간의 보편적 비참성인 원죄를 아담의 운명 없는(without destiny) 자유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아담으로하여금 보편적 성질을 가지지 않은 예외적 개체로 만든

<sup>64</sup>김경재, *폴틸리히의 생애와 사상*, 282.

<sup>65</sup>Ibid., 278.

<sup>66</sup>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 56.

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담을 비인간으로서 그리고 본질에서 실존으로 옮김의 상징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원죄 또는 유전적 죄는 본질적인 것도 유전적인 것도 아니다.<sup>67</sup> 그것은 어느 인간에게나 관계되는 소외의 보편적 운명이다. 원죄는 아담의 타락 속에 운명의 요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과 그의 후손들 속에 자유의 요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죄악은 개인적 행위가 되기 이전의 보편적 사실이다. 즉 개인 행위로서의 죄악은 소외의 보편적 사실의 현실화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개인행위로서의 죄는 자유와 책임과 인격적인 죄책의 문제이다. 그러나 자유란 소외의 보편적 운명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어떤 자유의 행위에도 소외의 운명이 포함되어있으며, 또 그 반대로 소외의 운명은 모든 자유행위에 의해서 현실화된다. 따라서 사실로서의 죄를 행위로서의 죄로부터 분리할 수 없으며 자유와 운명은 서로 짜여져있다.<sup>68</sup>

폴 틸리히의 죄악의 개념을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의 인격, 개인의 자유와 운명, 개인의 범죄와 화해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로 확대하여 살펴보자. 틸리히는 개인에게는 중심되는 개체가있지만, 집단에는 자연적, 결단적 중심이 없이 힘의 구조만 있다고 본다.<sup>69</sup> 이런 힘의 구조는 집단에 속한 모든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다. 사회적 집단에는 사회적 운명이 있는데, 모든 개인은 이 운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탈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범죄는 인류의 보편적 운명 형성에 참여하고 또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집단의 특수 운명형성에 참여한다. 그는 스스로 알지도, 뜻하지도 않으면서도 현실적 범죄가 제정되는 여러가지 조건을 준비하고 유지하며, 증대하는 일을 도왔을 것이다.<sup>70</sup> 이와 같이 개인과 집단의 죄악 역시 상호

---

<sup>67</sup>Ibid., 58.

<sup>68</sup>황승룡,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론, 94.

<sup>69</sup>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 58.

<sup>70</sup>Ibid., 59.

관련 속에 있음을 보게 된다.

폴 틸리히는 죄악의 개념을 하나님과의 분리인 소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이동과정에서 비롯된 불신앙과 교만, 그리고 욕망 때문에 인간소외, 즉 하나님과의 분리인 소외와 더불어 죄악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소외상태에서 나타난 세 가지 죄악의 의특성을 불신, 교만, 욕망이라고 보았다.

### 인간 소외의 신학적 이해- 소외된 인간의 증상

실존적 소외 속에서 인간과 세상은 함께 불신과 교만과 욕망에 빠지게 된다. 이들은 다 인간의 본질적 존재인 선에 대한 잠재성과 모순을 일으켜 자기파괴(self-destruction)에로 이끌어 간다.<sup>71</sup> 이러한 자기 파괴의 힘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소외 자체의 구조에서이다. 소외는 인간의 본질적 존재로부터 모순되고 본질적 구조를 파괴한다. 폴 틸리히는 이런 파괴를 악의 결과로 보았다. 파괴의 구조를 악으로 본 것이다.

### 존재론적 양극의 갈등

틸리히는 인간의 존재론적 양극의 갈등을 자유와 운명, 역동성과 형상, 개체화와 참여로 보았다. 소외상태에서는 이 양극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하게 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주어진 형상(운명)과 역동성(자유)이 결합되어 있으나, 소외의 상태에서 인간은 형상도 없고 역동성도 왜곡된다고 보았다. 이것을 새것에 대한 유혹

---

<sup>71</sup>Ibid., 60.

(temptation of the new)<sup>72</sup>이라고 불렀다.

폴 틸리히에 의하면 인간은 개체와 참여의 상호의존적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나, 소외의 상태에서는 자기자신 안에 칩거하여 참여에서 제외된다. 그결과 자아없이 단지 그를 객체로 만들려는 객체의 세력에 빠지게 된다. 주체가 객체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면 객체는 주체의 공허한 형태를 삼켜버린다. 이것이 바로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 또는 객체화(objectification)의 위협이다.<sup>73</sup>

### 소외된 인간의 증상

폴 틸리히는 존재의 양극적 요소들이 분리되면서 일어나는 소외의 현실, 즉 소외의 증상(症狀)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념으로 서술하고 있다.

첫째는, 죽음과 유한성과 죄책감이다. 존재의 궁극적 능력에서 소외된 유한이 인간을 결정하게 되어, 자연적 운명(죽음)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고, 죽어야 한다는 불안에 끌려가게 되었다. 즉 인간은 무(無)에서와서 무로 돌아가는 죽음의 지배 하에 있게 되었으며, 죽음에 대한 불안의 쫓김을 받게 되었다. 죄를 짓기 이전의 인간도 죽을 수 밖에 없음에 대하여 불안스러운 의식을 가진다. 즉 무에 대한 본질적 불안을 가진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 의식은 상실된 영원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식과 죽음의 공포로 바뀌어진다.<sup>74</sup> 소외된 조건 하에서는 죽음의 불안은 소명의 불안이상이다. 그것은 죽음을 죄악과 파괴의 구조로 만든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본질적 유한성이 실존적 고통으로 변천하는 것이 소외의 한 일반적 증상인 것이다.

---

<sup>72</sup>Ibid., 64.

<sup>73</sup>Ibid., 66.

<sup>74</sup>Ibid., 66-67.

둘째로, 소외는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다(저항과절망). 시간, 공간, 인과율, 실체, 이러한 유한성의 범주들은 모든 창조물에 해당되지만 본질적 유한에서 나타난 것과 실존적 유한에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갖게 된다. 즉 유한한 범주들의 기능은 실존의 조건 밑에서 변화하여 불안을 일으킨다. 최악의 구조는 존재론적 요소에 나타난 존재의 구조를 파괴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범주에서도 나타난다. 소외의 상태에서 범주는 실존을 지배하고 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은 저항(registance)과 절망(despare)을 초래한다.<sup>75</sup> 시간은 존재자체의 힘의 현존을 통한 영원한 지금(eternal-now)으로 경험되지 않으므로 실제적 현존 없는 덧없음(transitariness)이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헛되이 자신의 적은 시간을 늘리려 하고, 가능한 한 많이 덧없는 것으로 채우려 한다.<sup>76</sup> 공간은 존재자체의 능력의 현존인 영원한 여기(eternal-here)가 되지 못하므로 단지 공간적 우연성이 되어 필연적 처소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적 의미에서 특정한 장소를 자기자신의 장소로 만들려고 한다. 궁극적 집에 대한 동경이 이 욕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그는 어디까지나 땅 위의 순례자로 남게 되며, 결국 그의 처소는 더 이상 그를 알지 못하게 된다. 즉, 안식처 없는 절망이 남게 된다.<sup>77</sup>

셋째로, 소외는 고통(고난)과 고독으로 나타난다. 존재론적 양극의 충돌과 소외의 여러가지 조건 밑에 있는 유한성의 여러 범주들의 변화는 인간의 비참성의 여러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그 결과는 또한 고통(고난)과 고독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자기자신으로서의 인간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인간에 관한 것이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고 구별된다 하더라도 서로 의존한

---

<sup>75</sup>Ibid., 68.

<sup>76</sup>Ibid., 69.

<sup>77</sup>Ibid.



다.<sup>78</sup> 특히 폴 틸리히의 인간 소외의 증상으로서의 고난은 본질적 유한성의 요소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실존적 소외의 요소로서 자기 파괴의 구조로 보았다.

넷째로, 소외는 회의(懷疑)감과 무의미성으로 나타난다. 유한성은 회의감을 포함한다. 진리는 전체성인데, 유한한 존재는 전체를 포함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회의감이 인간의 본질적 존재에 속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죄의 상태에서도 회의감은 있었기에 낙원(에덴)의 신화에서 뱀은 인간의 회의감을 불러낼 수 있었다. 그러나 본질적 회의감은 소외 상태의 인간에게 주어진다. 이는 유한성은 모든 점에서 불확실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sup>79</sup> 이것은 인간존재의 보편적 불확실성, 인간존재 자체의 우연성, 그가 그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 속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사실, 필연적 장소와 필연적 현재가 결여되어 있음을 표현한다.<sup>80</sup> 그래서 인간은 공허와 냉소와 무의미를 경험한다.

다섯째로, 소외는 절망과 자살로 나타나기도 한다. 소외상태의 최악의 구조는 인간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끈다. 절망은 심리학적·윤리학적 문제로 인간 비참성의 최종적 표현이다. 절망 속에는 모든 고통의 요소, 즉 불안, 죄책감, 의미 상실 등이 집약되어 있다. 절망이란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는 가능성의 종국(終局)을 의미한 것으로 희망 없음(with hope)과 탈출구 없음(no exit)의 상황을 나타낸다.<sup>81</sup> 인간의 소외는 현실적 존재와 당위적 존재의 갈등에서 나온다. 이 갈등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필연적이다. 이러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뇌의 탈출구로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

<sup>78</sup>Ibid., 71-72.

<sup>79</sup>Ibid., 73.

<sup>80</sup>Ibid.

<sup>81</sup>Ibid., 75.

이상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존재의 양극에 의해 위기에 빠진 인간은 신적인 존재(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이동을 통해 나타난 실존적 유한성의 인간은 타락(죄악)으로 소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실존은 본질적 존재의 구조를 파괴하며 죽음, 죄책감, 자기파괴적 고통, 불안, 자살 등의 소외의 여러 증상을 가져온다. 이것은 인간이 신(神)과 결부되어 있지 않고 분리(분열)된 상황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유한한 인간에 주어지는 위기와 소외의 현실은 용기에 의해서 극복되는데, 이 용기가 존재의 근거의 힘 즉 하나님의 힘에 근거할 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폴 틸리히는 밝힌다. 파괴된 구조 하에서 인간은 존재의 근거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인간이 기대하는 이 새로운 존재는 폴 틸리히에 의하면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 치유하시는 실존적 존재, 소외를 극복한 화해와 사랑과 재결합의 실재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자아 간에 상실된 관계를 재결합시키는 그리스도이다.<sup>82</sup>

---

<sup>82</sup>황승룡,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론*, 121.

## 제 IV장

### 안동교회 중심으로 일어나는 인간 소외의 현상과 분석

#### 안동교회에서 일어나는 인간 소외현상과 분석

그 동안 교회는 소외해결의주체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러면서도 교회 자신도 소외가 일어나는 주체임을 적극적으로는 숨기려했고, 소극적으로는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는 통(通)성경적인 개념에서 인간 소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인식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라는 명제에서 인간은 누구나 소외를 경험한다는 전제가 담겨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혹은 ‘멀어짐’ 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나 소외를 경험한다는 것이 바른 성경적 인간 이해이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을 검증하기 위해 안동교회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세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누어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지(1)의 핵심적인 질문은 ‘소외를 경험하는가?’ 였다. 소외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았다. 제도적 소외, 관계적 소외, 자기 소외, 종교적 소외로 나누어 보았다. 제도적 소외는 교회 내 규칙이나 제도에서 오는 소외감을 의미한다. 관계적 소외는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오는 소외감을 의미한다. 자기 소외는 자기 스스로 일탈행위를 통해 오는 소외감을 의미한다. 종교적 소외는 초월적 존재(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오는 소외감을 의미한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교인은 137명(남성 46명, 여성 91명)이었다. 20대가 21

명(남성 9명, 여성 21명), 30대가 27명(남성 12명, 여성 15명), 40대가 30명(남성 11명, 여성 19명), 50대가 26명(남성 7명, 여성 19명), 60대 이상이 33명(남성 7명, 여성 26명)이었다. 소외를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했던 교인은 제도적 소외의 경우 91명(남성 31명, 여성 60명)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관계적 소외의 경우 108명(남성 36명, 여성 72명)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자기 소외의 경우 93명(남성 29명, 여성 64명)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종교적 소외의 경우 76명(남성 24명, 여성 52명)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네 가지 유형의 소외를 비율로 나타내면 제도적 소외(66%), 관계적 소외(79%), 자기 소외(68%), 종교적 소외(55%)이다. 그리고 네 가지 유형의 소외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101명으로 전체 137명 중 74%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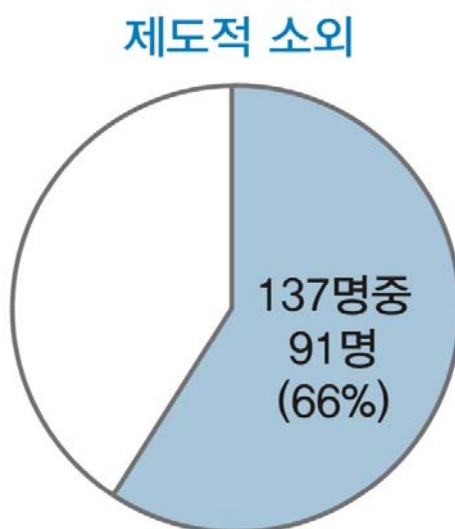
따라서 안동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외에 관한 설문을 통해 많은 비율의 교인들이 다양한 인간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제도적 소외의 현상과 분석

안동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1)를 통해 나타나는 소외 현상 중에 제도적 소외는 전체 137명 중 91명으로 66%에 해당하는 교인들이 경험했다고 설문문에 응했다. 이러한 소외를 경험한 교인들이 그러한 소외의 현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55%), 교회나 목회자를 통해 해결(10%), 교회나 목회자 외에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 해결(34%), 기타(34%)로 분석되었다. 극복의 방법으로 중복 체크를 가능하게 했다. 중복 체크의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과 나머지 세 개의 다른 항목들을 체크하는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았다. 이유는 제도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경미한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하거나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이유들에는 다른 교회와의 제도적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 사안들에 대해서는 교회나 목회자,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이나 교인들을 통해서 극복한다고 질문에 응하였다. 그리고 기타의 방법을 통해 극복하는 교인들도 34%나 되었다.

<표1>안동교회에서 일어나는 제도적 소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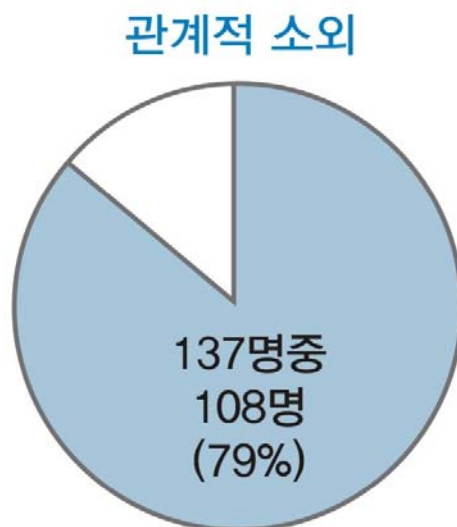
#### 관계적 소외의 현상과 분석

관계적 소외는 전체 137명 중 108명으로 79%에 해당하는 교인들이 경험했다고 설문에 응했다. 이러한 소외를 경험한 교인들이 그러한 소외의 현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66%), 목회자와 상담을 통해 해결(10%), 목회자 외에 소외시킨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19%), 기타(23%)로 분석되었다. 극복의 방법으로 중복 체크를 가능하게 했다. 제도적 소외보다는 중복 체크(제도적 소외는 133%, 관계적 소외는 118%)가 적게 나타났다. 스스로 해결할 만큼 경미하거나 크게 관심두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관계의 당사자와의 대화를 시도하여

해결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경우는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 중 일부는 해결하기 보다는 관계적 단절을 선택한 경우도 소수 있었다.

다른 소외의 형태에 비해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오는 관계적 소외감을 경험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은 안동교회가 여전히 개인이나 집단 내에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 중에는 소외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존재한다. 그들에게는 소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탈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표2> 안동교회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소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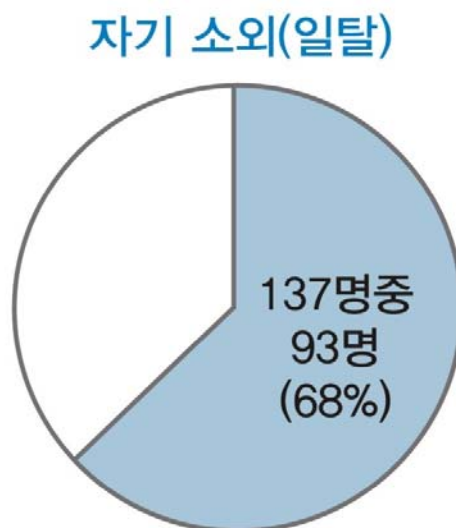


#### 자기 소외의 현상과 분석

자기 소외는 전체 137명 중 93명으로 68%에 해당하는 교인들이 경험했다고 설문에 응했다. 이러한 소외를 경험한 교인들이 그러한 소외의 현상을 어떻게 극복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60%), 목회자나 신앙의 동료들의 도움을 통해 해결(31%), 목회자나 신앙의 동료들 외에 전문기관을 통해 해결(10%), 기타(14%)로 분석되었다. 극복의 방법으로 중복 체크를 가능하게 했다. 중복 체크의 비율이 비교적 적었다. 비교적 스스로 해결하거나 목회자나 신앙의 동료들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는 자기 소외(일탈)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이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다. 여전히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신앙의 동료로는 해결되지 않는 자기 소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여러 전문기관과의 연계(bridge)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회마다 목회상담을 전공한 목회자들을 배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는 목회자가 감당이 되지만, 그 이상 밀접한 관계로 발전이 되면 교회를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유는 개인의 신상이 상당 부분 노출되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다.

&lt;표3&gt; 안동교회에서 일어나는 자기 소외(일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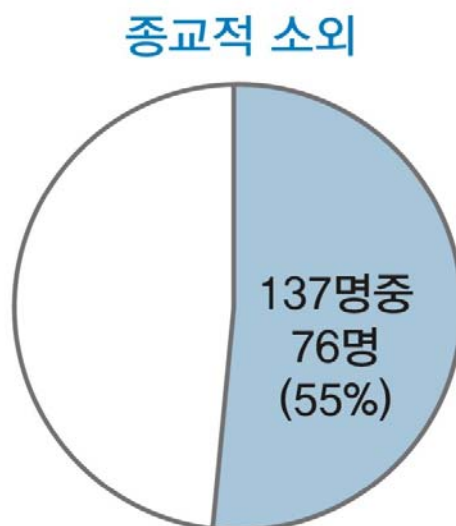


#### 종교적 소외의 현상과 분석

종교적 소외는 전체 137명 중 76명으로 55%에 해당하는 교인들이 경험했다고 설문에 응했다. 이러한 소외를 경험한 교인들이 그러한 소외의 현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초월적 존재(하나님)에게 다가서기 위한 개인적 노력으로 해결(76%), 목회자나 신앙의 동료들에게 조언을 통해 해결(20%),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 알려서 도움 청함을 통해 해결(17%), 기타(8%)로 분석되었다. 극복의 방법으로 중복 체크를 가능하게 했다. 종교적 열심을 통해 초월적 존재(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개인적 노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비율이 높다. 특이한 것은 다른 소외의 형태에 비해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알려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목회자에 의존하는 신뢰만큼이나 공동체에 의존하는 신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lt;표4&gt; 안동교회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소외



#### 유교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소외의 현상과 분석

안동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유교적 전통이 예로부터 자리잡은 곳이다. 앞에선 언급한 인간소외의 형태는 내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두번째 설문지는 외부적인 요인(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생겨나는 인간 소외의 현상에 관한 것이다. 유교가 기독교에 미친 좋은 영향들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고, 설문은 부정적 영향을 전제하여 작성된 설문지이다. 전체 64명이 설문에 응했다. 유교에 대한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각 항목당 평균 68%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젊은 층에서 유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교가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각 항목당 평균 56%가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교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는 비율이 유교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는 비율보다 높았다.

유교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신분의 차별(42명, 66%)과 파벌의 문제(23명, 36%)로 나타났다. 중복체크가 가능하게 하였다. 기타 영향으로는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상, 남녀역할의 고정화, 높고 낮음의 질서(목사와 성도, 직분자와 非직분자), 어른과 아이의 질서(존중이 아닌 강요된 질서) 등의 설문 의견이 나타났다.

교회 내에서 유교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설문은, 기독교 가치관이나 성경적 교리들의 가르침(70%)과 총회나 노회나 교회의 합리적인 규칙들(6명, 9%), 기타(1명, 2%)로 나타났다. 답변하지 않은 사람(12명, 19%)도 있었다. 기타 의견은 사회의 변화라고 답했다.

유교에 의해서 받은 부정적 영향들이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설문은, 거의 해결된 것이 없다(6명, 9%)는 의견과 일부분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41명, 64%)는 의견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다(9명, 14%)로 나타났다. 답변하지 않은 사람(8명, 13%)도 있었다.

유교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사역들에 대한 답변으로는 성경공부, 소그룹모임(구역모임 포함), 다음세대 교육사역, 제직회와 공동회의와 같은 민주적 절차, 가정사역, 외국의 교회 사례에 대한 정보, 장례에 대한 교회 예식, 제사를 대치할 수 있는 예식 등으로 나타났다.

유교가 미친 부정적 영향들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인간 소외현상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 내지는 역할의 고정, 둘째는 직분이나 신분으로 나타나는 높고 낮음, 셋째는 가문이나 지역으로 나타나는 파벌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들이 일부분 해결되었거나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고 설문에 응한 사람이 78%였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적체되어 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개인 또는 집단이 노력해 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 안동교회에서 일어나는 인간 소외현상에 대한 평가

안동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도적 소외, 관계적 소외, 자기 소외(일탈), 종교적 소외와 같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소외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교와 같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소외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인간 소외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76%나 되었다. 따라서 인간 소외의 현상은 안동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동교회는 인간 소외의 현상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바가 없지만, 성도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오기 위해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 오므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인간 소외의 현상들의 완화 또는 극복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안동교회는 유교가 뿌리 깊게 내린 지역에 시내 중심부에 최초로 설립된 교회이다. 따라서 유교에 의해 부정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설문지(2)를 통해 나타난 것은 지금은 그러한 영향들이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기독교적 가치들을 비교적 잘 인식하고 가르쳐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사역들을 통해 완화 또는 극복되었다고 본다.

안동교회가 인간 소외의 현상들이 잘 극복되어 왔다는 것은 교회의 지속적 성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인간 소외의 현상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본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이곳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왔고, 특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보더라도 안동교회의 성장은 저(低)평가될 수 없다.

또한 2003년 현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800여명이었던 성도들이 1,500여명으로 증가한데는, 이러한 인간 소외의 현상들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 근거는 다음에 소개할 여러 사역들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한국교회의 성장에는 새로운 사역을 도입하여 정착하게 한 이유도 있지만, 적지 않은 교회들이 비슷한 사역들을 도입하는 현상으로 사역의 포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사역이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탈진현상이 현저하게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이유에서 교회의 성장은 새로운 사역의 도입 외에도 성도들의 불만스런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의 현상의 완화 또는 극복의 과제는 교회의 성장과 무관치 않다. 안동교회는 새로운 사역의 도입과 교회 내부의 인간 소외 현상을 포함하여 불만스런 환경을 줄임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 제 V장

### 안동교회의 인간 소외현상의 완화 또는 극복을 위한 소통

#### 안동교회의 인간 소외현상의 완화 또는 극복 사례

안동교회 내에서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인간 소외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부분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저자는 이것이 안동교회의 성장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안동교회의 여러 사역들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보았다.

저자는 안동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역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했다. 그것은 ‘소통’ 이었다. 특히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 여러 유형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러가지 소통의 구조를 통해 일정 부분의 불만과 불평들이 해소 및 이해되고, 이로 인해서 인간 소외의 현상들이 완화 또는 극복되었다고 본다.

소통을 유형별로 세분화 하면 다음과 같다. 당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의 소통, 교구 목사와 교구 성도들 간의 소통, 소그룹을 통한 소통, 세대간의 소통(가족간의 소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당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

일부 개척교회를 제외하고 어느 교회든지 당회가 구성되어 있다. 당회의 구성원은 현직 목사 7인과 장로 23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로는 20개의 제직 부서의

부장 역할과 부서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부서에서 논의하고 당회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다. 목사는 담당하는 사역을 장로 및 부서 임원들과 상의하고 결정하는데 참여하여 교회의 정책 방향에 맞게 준비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모든 사역은 10월 말에 정책 당회를 통해 다음 년도에 추진할 사역들을 논의한다. 그리고 정책 당회의 사역 초안은 1개월 전에 모든 당회원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 간다.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해당 부서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부분과 보완될 부분들을 미리 논의한 후에 당회에 안건이 논의 되도록 한다. 당회에서는 맡은 부서의 내용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내용들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 된다. 부서의 임기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들을 경험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 임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의 특징이 고착 되거나 문제가 생겨 수정이 필요할 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각 부서의 임원들은 사역을 함께 수행하는 부원들과 실무적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당회에 잘 전달되도록 사역 패키지를 만들어 다음 사역 때에 참고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실무적 책임자들인 부원들은 참여하는 성도들의 평가(설문)를 가지고 담당 목사와 부장인 장로들과 회의를 거쳐서 개선된 사역을 정책 당회 때에 입안하는데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다.

이러한 소통의 구조는 결과적으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요구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인간 소외의 현상을 완화 또는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 담임목사와 성도들 간의 소통

안동교회는 성도를 기존 성도와 새가족으로 구분한다. 물론 예배는 기존 성

도와 새가족이 함께 참여한다. 어느 교회든 담임목사는 예배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과 소통한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가 수행하는 사역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권면이라는 탈을 쓰고 강제되는 일방적 소통이 일어나기도 한다. 안동교회의 담임목사는 부임한 이래로 일방적 소통을 가지기 보다는 자원하는 것을 목표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해 옴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사역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성도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성도들의 불평을 얼마나 교회가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몇 가지 성도들의 불평이 받아들여져서 보완된 것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안동교회는 5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갖추었다. 그러나 식당에 어린 아이(5세 이하)들이 편하게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이에 대한 불평을 아이들 전용 개인식탁을 각줄 끝에 하나씩 비치하였다. 이에 대한 성도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또한 유아들을 젓 먹일 공간이 없다는 불평이 있어서, 유아들을 맡아서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젓 먹일 수 있는 소파와 커튼과 몇 가지 편의시설들이 마련되었다. 이 밖에도 구(舊)건물 본당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관계로 새롭게 100주년 기념관이 지어질 때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과 구(舊)건물 본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보했다.

소개한 것 외에도 성도들의 요구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러한 요구들을 당회에 상정하여 이것이 논의되도록 담임목사는 기존 성도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개선책으로 인해서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교회가 108년의 역사를 가진 것에 비해 40대와 50대 비율이 가장 높은 젊은 교회의 모습을 갖춘 것도 바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안동교회는 매년 120 ~ 150명 정도가 새롭게 등록한다. 물론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된 사람들과 타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다 포함한다. 새가족으로 등록하면 새가족안내과정에 8주 동안 참여하게 된다. 1주 차에는 담임목사가 ‘안동교회 소개’를 통해 교회의 역사를 소개한다. 2주차도 ‘사명선언과 목회방침’을 통해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새가족 교육의 차원에서 과정이 진행되지만, 새가족의 교회 적응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듣기도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새가족부 담당목사가 3주차를 진행하는데, ‘예배의 순서와 의미’에 대해서 다룬다. 그리고 4주차부터 8주차까지 교사들이 반을 나누어서 진행한다. 한 기수 당 인원은 20명 내외로 제한된다. 그리고 한 반에 3~4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주중에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구성되며, 오전에는 간단한 간식과 오후에는 저녁 대응으로 간식이 준비된다. 또한 안내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담임목사와 기념촬영이 이루어진다. 새가족부에서 진행하는 8주차의 안내과정에 참여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고 등록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정착 비율에서 월등하게 안내과정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소통의 구조에 기인한다. 안동교회의 사역은 가급적 많은 관계적 소통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담임 목사, 담당 부목사, 교사와 staff,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소통의 구조를 강조하는 모형이다.

기관과 부서의 중요한 사역들의 시작은 담임 목사가 반드시 관여한다. 간접이 아닌 ‘관심’으로 시작하고, 담당 부목사가 구성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역들을 조정하며, 교사와 staff이 구현하는 소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모든 사역의 개회설교를 담임 목사가 준비한다. 그리고 담당 부목사는 이전 자료들을 검토하되, 특히 구성원의 목소리(설문)를 듣고 평가해 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역을 조정하게 된다. 그리고 교사와 staff은 수정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담당 부목사와 협의한다.



### 교구목사와 교구 성도들 간의 소통

안동교회는 주일 출석하는 성도들이 1,500명 내외이다. 1980년대 이전에는 담임목사가 성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심방이 있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면서 1980년대 이후로는 교구로 나누어지고 교구를 책임지는 부목사가 심방을 맡게 되었다. 현재는 담임목사의 심방의 범위가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개업 심방,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방문해서 드리는 입택 심방,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주례, 장례가 났을 때에 입관 예식과 위로 문상예배, 장례 예식을 담임목사가 관여함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는 부목사가 담당한다. 부목사는 교구를 맡아서 그 안에 편성된 구역들의 리더들(100부장:장로, 30부장:안수집사와 권사, 10부장:집사)과 소통하며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봄(3월~5월)에 이루어지는 대심방은 성도들과 소통하는 좋은 창구 역할을 한다.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인터뷰와 기도제목을 받아서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는 구조이다. 교구의 임기는 1년이다.

무엇보다 구역 안에 구성원인 가족들의 애경사를 리더들이 담당 교구목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담당 목사는 심방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주일예배시에 안부를 묻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소통은 구역에 소속된 가족들이 소외를 경험하지 않도록 기여한다.

구역모임은 여름(8월)과 겨울(1월)을 제외하고는 매주 1회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봄과 가을에 구역모임이 실시될 때에 100부장(장로)이 30부장(권사)과 10부장(집사)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진다. 보통 100부장이 맡은 구역은 4~5개에서 많게는 7~8개 구역을 책임지며, 30부장은 1~2개 구역을 책임진다. 그리고 10부장은 1개 구역을 원칙으로 맡게 된다.

구역의 구성원을 심방할 때에는 100부장과 30부장과 10부장이 동행하도록 되

어 있으나, 형편상 100부장이나 30부장 둘 중에 한 분이(주로 30부장) 참가하게 된다. 따라서 구역원들의 형편을 구역 리더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으며,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모두가 항상 이러한 소통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일을 알리기 싫어해서 익명성을 보장 받으려 하는 경우도 있다. 구역원의 모든 형편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원만한 소통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때로는 알고도 프라이버시 (privacy) 보호 차원에서 외부로 알리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들을 포함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 소그룹을 통한 소통

안동교회는 소그룹 사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소그룹 모임의 대표적인 것이 구역모임이다. 구역모임은 어느 교회든 실시하고 있다. 안동교회는 구역모임에서 주일설교의 내용을 다시 나눈다. 구역 리더들은 금요일과 주일에 모여서 구역에서 나눌 것을 다시 숙지하게 된다. 주일설교를 자신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묵상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나눔이 이루어진다. 해석을 강요받지 않는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중압감도 가지지 않는다. 그저 동감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소통은 이루어진다. 본인이 경험한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그리고 간접적 경험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안동교회는 수년 전부터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소그룹 모임들이 있어왔다. 취미와 관심에 따라서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참여하였다. 구역모임과는 또 다른 형태의 소그룹 모임이다. 모임은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지만, 일정 인원이 모여지지 않으면 자동 폐강이 된다. 하지만 폐강된 과목이 없다.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

다.

## &lt;표5&gt; 2011년 안동교회 상반기 소그룹 박람회

제1회안동교회소그룹모임장소와시간					
소그룹	소그룹소개	리더	요일	시간	장소
야곱	치열하게살았던야곱의변화를배우며나눔을통한성숙을도모합니다.	서광수	목	19:00	양선
여호수아	가나안정복과정착에공헌한여호수아의생애와리더십을나눕니다.	권한조	목	19:00	절제
다윗	다윗을통한인간의강함과연약함, 하나님마음에합한사람의조건을배워갑니다.	이성은	주일	13:50	은혜
바울	선교에지대한공헌을하였던바울의현신과삶을나눔.	오신창	주일	10:30	은유
바나바	말없이말하는바나바의아름다운삶을통한우리의성숙을도모합니다.	김태희	월	19:00	에이레네
교회헌법	모르면불편하고문제가생기는교회법에대해서살피고나눔을갖습니다.	권헌서	주일	10:30	양선
요리문답	기독교교리의기초를배우고나눔을갖습니다.	이희학	화	19:00	새빛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신앙의기초를튼튼히해가는소그룹	임원수	주일	10:30	절제
안동교회역사	안동교회역사전반을살피며은혜를 나누고의미를되새깁니다.	임만조	화	19:00	에이레네
한국교회사	선교한세기동안하나님이얼마나우리나라를사랑하고복음이확대되었는지를살핍니다.	김대성	주일	10:30	인내
말씀묵상	깊은말씀묵상을통한삶의변화를도모합니다.	김성희	월	19:00	새순터
찬송가배우기	찬송가배우기를통해서은혜를나누고그룹원간의삶을나눕니다.	오상식	주일	13:50	세움터
성경과우표	우표를통해서말씀을다시생각하고은혜를나눕니다.	전세종	목	19:00	세움터

중보기도(남)	중보기도를배우고기도의깊고넓은 세계로들어갑니다.	배승룡	수	20:20	생명터
중보기도(여)	중보기도를배우고하나님과교제하는기쁨을알아갑니다.	김경분	목	10:00	에이레네

&lt;표6&gt; 2012년 안동교회 상반기 소그룹 박람회

제2회안동교회 소그룹모임장소와시간					
소그룹	소그룹소개	리더	요일	시간	장소
여호수아	가나안정복과정착에공헌한여호수아의생애와리더십을나눕니다.	권한조	목	19:00	절제
교회헌법	모르면불편하고문제가생기는교회법에대해서살피고나눔을갖습니다.	권헌서	주일	10:30	양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신앙의기초를튼튼히해가는소그룹	임원수	주일	10:30	절제
안동교회역사	안동교회역사전반을살피며은혜를 나누고의미를되새깁니다.	임만조	화	19:00	에이레네
올바른기독교 용어	오용하고있는기독교용어를바로잡고정확한표현을함께배웁니다.	윤성광	주일	10:30	희락
성경쓰기	성경말씀을직접쓰는아름다운작업을통해하나님의뜻을마음에세웁니다.	권중희	주일	10:30	믿음
찬송가배우기	찬송가배우기를통해서은혜를나누고그룹원간의삶을나눕니다.	오상식	주일	13:50	세움터
기독교도서묵상	기독교도서를함께읽으며신앙의성숙을이루어갑니다	김현호	주일	13:00	도서관
말씀묵상	깊은말씀묵상을 통한삶의변화를도모합니다.	김성희	월	19:00	새순터
우표로보는성경이야기	우표를통해서말씀을다시생각하고은혜를나눕니다.	전세종	목	19:00	희락
마음의상처, 성경으로풀기	말씀으로마음의상처를치유하고영적전쟁에서이길수있는힘을기르는반	이중숙	월	19:00	희락

모스더 비전기도회	교회를통해서주시는비전과사역을 위해기도하며은혜를나눕니다.	김원구	주일	14:00	충성
하나님의음성 을듣는중보기 도	조이도우슨의중보기도원칙에따라 서효과적으로 기도합니다.	배경남	목	10:30	새순 터
다문화가정	신앙절친만들기, 교회생활조기정 착, 일상생활정보교환하는다문화 가정모입니다.	서광수	목	19:00	양선

안동교회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평신도 중심의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하반기에는 교역자 중심으로 소그룹이 운영되어 왔다. 매년 개설되는 과목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7> 2012년 안동교회 하반기 성경 아카데미

과목	담당자	시간	장소
구약인물	김인태 목사	화, 오전 10시	아삼실
신약인물	윤대원 목사	화, 오후 7시	희락실
성경주제(1)	이은과 목사	목, 오전 10시	희락실
성경주제(2)	박광훈 전도사	화, 오후 7시	아삼실
구약성경	임석형 목사	목, 오전 10시	아삼실
신약성경	오병렬 전도사	목, 오후 7시	세움터

<표8> 2014년 안동교회 하반기 성경 아카데미

과목	담당자	시간	장소
예수님의 사역	유승혁 목사	화, 오전 10시	아삼실

소선지서	이은과 목사	화, 오전 10시	찬양대 연습실
기독교강요	유승혁 전도사	화, 오후 7시	양선실
역사서	윤대원 목사	목, 오전 10시	자비실
소요리문답	임창무 전도사	목, 오전 10시	희락실
영적성장반	조경화 목사	목, 오후 7시	생명터
성령행진	권훈 목사	목, 오후 7시	새가족부실

### 세대 간의 소통

안동교회의 소통의 구조는 비슷한 세대 혹은 비슷한 관심과 취미 그룹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대 간의 소통의 구조도 가지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호크마 세미나’,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한지붕 가족사랑 예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1년 중 8월 15일을 전후해서 ‘가족 힐링 캠프’도 이루어진다.

호크마 세미나의 경우 부모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이다. 특히 국내에 권위 있는 강사들을 초빙하여 매년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리고 교회 내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가 아닌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간지에 홍보를 한다. 자녀교육에 관한 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공통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좋은 사역이기도 하다.

<표9> 안동교회 제1회~제12회 호크마 자녀교육세미나 경과내용

회차	일시	강사	내용	비고
----	----	----	----	----

1	06.1117	최희수 독서영재 푸름이 아빠	책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06.11.24	강인중대표 하이라이트 대표 대중음악 전문가	대중음악 볼륨을 낮춰라	
2	07.5.18	유은정집사 독서영재 삼남매엄마	행복한 독서영재 교육법	
3	08.5.16	김형섭(켄트김) 하버드대 출신	하버드식 학습법	
4	미실시			
5	09.5.15	김미석 건국대 겸임교수	민사고 형제 엄마의 줄탁동시 학습법	
	09.5.22	강성화교장 고양외고	성공하는 자녀교육! 성공적인 입시전략!	
6	미실시			
7	11.5.14	홍정수교수 한국리더십센터 서울대 리더십 강사	부모의 리더십이 자녀의 리더십입니다	
8	미실시			
9	13.8.31	권장희소장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공부 집중력을 높이는 스마트폰 절제력	
10	14.5.24	이상억교수 장신대 목회상담학	feel通:通通 튀는 자녀양육 노하우	
11	15.5.16	이영진목사 삼보교회 교육목사	“安과動 : 흔들림없이 자기 길 가는 德스러운 부모되기”	시91:1- 16
12	16.4.16	공진수목사 목양교회 담임목사 장신대 겸임교수	“건강한 자녀를 세워가는 메시지 테라피: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인도하며, 말씀이 세웁니다!”	

한 지붕 가족사랑 예배는 전 세대가 모여서 드린다. 찬양대는 가족을 중심으로 전 세대로 구성된다. 찬양단은 다음세대교회(어린이, 학생, 청년)로 구성된다.

가족창(특송)은 한 가정의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한다. 60년 이상 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예배에 출석한 근속상 시상, 결혼한지 60년이 지난 부부 시상, 다문화 가정의 참여, 자녀가 부모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부모 자녀간 hugging, 자녀를 위한 부모의 안수기도 등으로 예배가 구성된다. 3세대 간에 소통과 다문화 가정과의 소통까지 다양한 소통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 예배 외에도 로비에는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물건들을 가져와서 전시함으로 관람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도 한다.

<표10> 안동교회 한 지붕 가족사랑 예배

●가족사랑예배큐시트

	순서	시간	준비	담당자	비고
1	다음세대찬양단찬양	15분	마이크	정윤영 영상실	본당전면
2	기도	3분			강대상
3	가족찬양대송영	30초		권용일	찬양대
4	찬송가	3분		인도자	강대상
5	성경봉독	2분		인도자	강대상
6	가족찬양대: 찬양	5분		권용일	찬양대
7	설교	20분		담임목사님	강대상
8	가족작품영상	3분	동영상	영상실	전면스크린
9	가족창 권원복집사가정	5분	마이크(입 식3)	예배부	본당앞좌석에서 앞으로이동
10	근속출석시상 김화석장로	3분	표창장 시상품	예배부	강대상앞으로이동 시상후좌석
11	다문화가정찬양	3분		예배부	강대상앞으로이동 찬양후좌석
12	다음세대 영상편지	4분	동영상	영상실	본당스크린



13	회혼가정영상 최경애권사, 배홍직목사	4분		영상실	
14	회혼축하이벤트	8분	떡케익테이블, 라이터, 꽃다발 & 축복송영상	예배부 영상실	1)스텝은떡테이블을 중앙으로이동시킨후 촛불점화 2)축복송후점멸 3)꽃다발증정
15	광고	3분		담임목사님	
16	찬송	3분			
17	가족hugging	2분			1)부부hugging 2)자녀hugging
18	부모님안수기도	3분			부모님일어서서
19	축도	1분		담임목사님	
20	가족찬양대파송찬양			권용일	찬양대석

●회혼축하대상자

대상	교구	년수	결혼한해	기타
배홍직목사, 최경애권사	2교구	64년	48년	2012 하반기회혼대상

●가족창

권원복집사가정: 3대가족

-1대: 권원복집사, 금용림권사

-2대: 권태섭집사, 김인숙집사/ 권태욱집사, 홍양순집사/ 권태원집사, 김필자집사

-3대: 영광, 영인, 유리, 유진, 영진

●근속출석시상대상자

대상	직분	출석년수	출석시작시기	기타
김화석	장로	85년	태어날때부터	2012 하반기근속대상

●다음세대찬양단

찬양리더	정운영선생
------	-------

신디		박설정, 정운영	
베이스		이승열	
드럼		김인수집사	
1	꿈나무	10명	권유진, 배성진, 허정현, 황주은, 이호정, 권채영 김지원, 박주찬, 윤충권, 전진
2	비전터	11명	김예선, 김다운, 권영인, 박광일, 박원미, 배승훈 손기현, 이은호, 이현섭, 조현호, 전범수
3	하늘청년	8명	김민애, 권국현, 권오정, 김명린, 이재문, 박나영 이은원, 황정수

●가족찬양대

지휘		권용일집사	
피아노		이지영청년	
오르겐		김선경집사	
대 원	1	안영진집사, 권향수집사	하영(꿈나무), 원영(꿈나무)
	2	권영일집사, 김경준집사	채영(꿈나무)
	3	최성연집사, 손향숙집사	지연(청년), 규민(청년)
	4	손병주집사, 서정순집사	기범(청년), 기성(비전터), 기현(꿈나무)
	5	서일교집사, 배경남집사	주희(꿈나무), 주영(꿈나무)
	6	김상우집사, 강정혜집사	지수(청년), 효은(청년)
	7	이부현집사, 우현자집사	재문(청년), 하영(비전터), 재영(꿈나무)
	8	김현호집사, 이계옥집사	정원(비전터), 건우(꿈나무)
	9	조주규집사, 최영란집사	승은(비전터), 진우(비전터)
	10	조주락집사, 엄인영집사	연호(비전터), 수호(꿈나무), 순정(꿈나무)
	11	이승열집사, 천경아집사	시민(비전터), 시온(꿈나무), 시은(꿈나무)
	12	이인수집사, 권미정집사	정원(꿈나무), 혜란(꿈나무)
	13	김신호집사, 한경원집사	영은(비전터), 진경(비전터)
	14	류갑기집사, 김경옥집사	효린(꿈나무)
	15	권오규집사, 손명자집사	혁배(비전터), 효은(비전터)
	16	오상식장로, 임현숙권사	
	17	이강철집사, 배초원집사	주영(꿈나무), 나영(새싹)
	18	권문재집사, 정은영집사	려준(꿈나무), 려원(꿈나무)

## ●가보 전시물품접수목록

	이름	물품	사연
1	오현탁	익룡(종이접기)	종이접기 자격시험에 응시한 작품
2	오현지	시계	지점으로 직접 현지가 만든 시계
3	장현숙집사	액자(십자수)	취미생활로 한 십자수
4	정선희집사	그림액자	딸 효진이가 직접그린 그림
5	임만조장로	액자4점, 화분4	유명사진작가 에게 받으신 사진액자 외 키우신 화분들
6	권오승집사	국화분재화분	시온재단 추수감사예배시 구입하신 윤성광장로님 작품
7	윤성광장로	국화분재화분	시온재단 추수감사예배시 헌물하신 작품
8	이꽃분권사	시화	글: 자작시, 글씨: 따님이 쓰신것
9	남중자집사	종이부채	모친상중 모친친구분께 받은 위로부채
10	박수권집사	액자(십자수)	최후의 만찬, 복주머니
11	윤대원목사	납시도구 - 찌	찌 장인이 수제로 만든 것.
12	김옥근집사	책, 편지글	선친께서 피난중 남기신 글, 결혼한 후 어머니께서 보낸 엽서, 아들이 어릴적 엄마에게 보낸 전도 편지
13	김정희집사	액자, 비누세트	힘든시절 딸이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 그린 그림. 비누공방을 하면서 만든 비누작품
14	이계옥집사	그릇, 손가방	아들건우가 그려 만든 그릇, 그림을 그린 손가방
15	전경순집사	앞치마,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열심히 장사하던 시절의 앞치마
16	강신정집사	퀼트 액자	
17	서정순집사	액자	가훈이되는 성경구절의 말씀을 십자수로 놓은 액자
18	조양순권사	종이말이 액자	종이말이로 만든 십자가를 넣은 액자
19	김윤애권사	편지	부친께서 생전에 남기신 편지 및 사진
20	박영숙집사	자기공예, 꺾꽂이	자기공예: 여러점, 꺾꽂이 : 3점
21	김춘희권사	천연염색 문갑	딸 아이 손뜨게 원피스, 염색 문갑, 목공예
22	구교익장로	노트, 성화돌	곽선희 목사 설교노트, 성화수석
23	이부현 집사	폼아트	예수님과 제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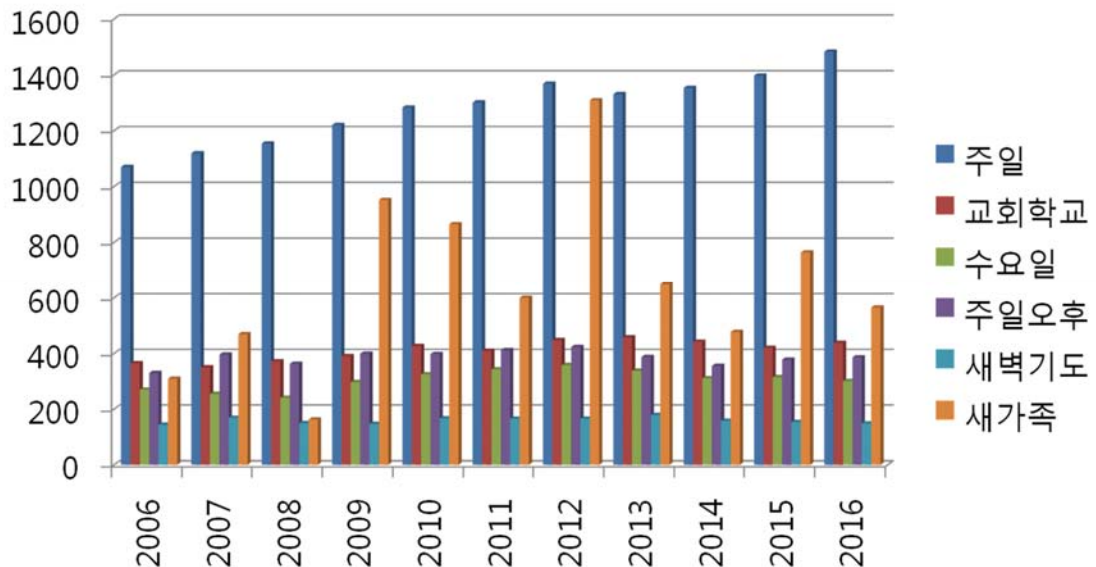
24	신동현집사	화분	고 김기수목사님 사택기와의 키운 다육이화분
25	남정림집사	선호의 성장기	선호의 성장기 사진과 여행보고서
26	서대교집사	퍼즐 액자	1000ps 퍼즐액자
27	임원수집사	사진	안동교회를 찍은 사진
28	서정자권사	한지공예	선물로 받은 애장품, 한지공예 상, 스탠드
29	권미향권사	한지공예	직접만든 한지공예 문갑, 차납
30	윤은애집사	사진	직접찍은 꽃 사진

가족 힐링 캠프는 매년 8월 15일(광복절 공휴일) 전후로 이루어진다.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에 대한 감사를 나누는 사역이다. 현대 가정이 가족 간 심각한 갈등과 충돌로 인해 힘들어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가족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가족 힐링 캠프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가족 힐링 캠프는 1박 2일로 진행된다. 3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가족송 발표회, 가족 협동화 그리기, 힐링 세족식, 편지를 통한 마음 전하기, 가족 말씀 나누기, 사랑의 언어(I-Message) 사용하기, 자녀와 비전 나누기, 가족 사랑 행진(가족 체육 대회), 사랑의 결단식의 대체로운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서른 가족 내외(100명 내외)가 참석하고 있다.

안동교회는 2003년 현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교회 내에 내재되어 있던 불만스런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적 개선과 사역들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각 사역들은 앞에서 소개된 여러 소통의 구조를 개선함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교회의 성장을 이끌어냈다. 내부적으로는 기존 사역들을 소통의 구조를 바탕으로 보완해 나갔고, 새로운 사역들 역시 소통의 구조에서 신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소통을 시도하였다.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졌고, 지역 사회의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내부적 소통과 외부적 소통의 양방향 소통에 관심을 가지고 노

력을 기울인 결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교회의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표11> 안동교회 주일출석 통계



### 안동교회의 사회적 소통

안동교회는 1909년 설립된 108년의 전통을 지닌 역사 깊은 교회로, 설립 후 현재까지 한번도 교회의 분란이 없었던 평화로운 교회이다. 복음화에 대한 헌신은 교회분립과 교회개혁으로 나타나 지역복음화 전략을 통해 철저히 교회를 분립하고 마을마다 교회를 개척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1911년 교회 내에 안동 최초의 초등교육기관인 계명학교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에는 여성들만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교과 내용은 조선어, 일어, 산수, 성경, 한문, 습자, 도화, 글씨(받아쓰기), 작문, 음악 등이었으며 역대 교사는 선교사와 본교인 교인중 지도급 인사들 다수가 봉사했다. 1937년 재학생은 남 76명, 여 56명으로 132명이었다. 상민의 자녀도 받아들여 반상의 계급타파에 앞장 섰고, 3.1만세 운

동에 참가함으로써 민족운동에까지 앞장섰다. 초등교육기관인 계명학교가 있었다면, 1924년에는 경안중학원을 설립하여 교사 4인이 100여명의 입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폐교 되었다. 해방 후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고취되던 때에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유치원을 1948년 3월에 설립하였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1965년에 안동중앙 신용협동 조합을 설립 운영, 1957년에는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신학생들 학비보조를 시작으로 1972년부터는 중·고등학교 학생과 간호고등학교와 성서 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1998년 말 축적된 장학기금은 2억 2천만원이었다. 지금도 매년 3,000만원씩을 시내 중·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1982년 기독교노인회를 창설하고 본교회 교육관 일부를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993년 4월 7일 수요일 노인대학을 개강하였는데, 65세 이상 남·녀 노인 114명 등록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369명이 등록하여 매주 300명 이상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임을 갖는다. 최근에는 평생교육센터를 개설하여 교회 내·외부의 전문강사들을 섭외하여 생활과 밀접한 강좌들을 열어 안동시민 모두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는 독거노인 반찬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후 노인들의 실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어려움에 다각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3년 노인의 날을 맞이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또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해마다 좋은 교회들을 선정하는데, 안동교회가 ‘2015년 참 좋은 교회상’을 수상하였다.

이처럼 안동교회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 경로대학

안동교회는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타지역에 비해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다. 2013년 경상북도의 고령자 통계를 살펴보면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17.5%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라남도(21.4%)에 이어 2번째로 높다. 안동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3만 2천명(19.6%)이 넘는다. 경상북도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다.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의 사역들도 그에 맞추어서 추진되고 있다.

안동경로대학은 매년 3월부터 6월까지와 9월에서 11월까지 운영이 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교육일정은 예배와 건강체조, 특강과 점심, 그리고 오후 문화교실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교실은 웰빙댄스,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가요교실, 민요장단, 컴퓨터, 미술반, 찬양반, 장기·바둑반, 생활상식, 성경인물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30여명씩 1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18명의 교사와 14명의 전문강사들이 봉사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시(市)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시니어 한글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12> 안동교회 경로대학 2016년 강의일정

월 / 일		시간	강의내용	강사소개
3월	2일	10:00	개 강 및 예 배	김승학 목사(안동경로대학장)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가 요 교 실	구인순 강사
		11:50	오 리 엔 테 이 션	안동경로대학 안내(교사, 강사)
		12:10	점 심 식 사	권사회

9일	10:00	개 강 및 예 배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우 리 가 락 한 마 당	김향숙 강사(국악인)	
	11:50	오 리 엔 테 이 션	자치회 구성	
16일	12:1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16일	10:00	개 강 및 예 배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바른 선거, 참여 선거	안동선거관리위원회	
11:50		오 리 엔 테 이 션	자치회 구성	
23일	12:1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23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부 활 절 계 란 만 들 기	김후자(경로대학 총무)	
11:50		공 지 사 항	김완수 학감	
30일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30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화재예방 및 위기관리	안동소방서장	
11:50		공 지 사 항	김완수 학감	



4월	6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신 나 는 노 년	김진동목사(양포교회 담임목사)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일(휴무)		
	20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유 쾌 한 노 래 교 실	김봉한 강사(노래강사)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27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어 버 이 날 행 사	안동유치원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5월	4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영 화 감 상	영곡 아트홀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바 자 회 탐 방	개인별(문화교실 없음)
	10일	봄 소 풍		

	18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가족이 행복해지는 대화법	김민아강사(안동시간강가정지원센터)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5월	25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스 마 트 폰 활 용 법	이경현(LG U+)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6월	1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어 르 신 눈 건 강	최유근 강사(안과원장)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8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건 강 과 에 어 로 빅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15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이름답고 행복한 노후의 삶	배연일 강사(안동대 생활환경복지)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22일	10:00	종 강 및 예 배	김승학 목사(안동경로대학장)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웃 음 치 료 교 실	우애자 강사(웃음치료강사)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29일	1학기 종강 및 여름방학 특별순서 - 김봉한 강사(노래교실)		

월 / 일	시간	강의내용	강사소개	
9월	7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노년의 건강과 신앙	조현선(도곡교회 담임목사)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오 리 엔 테 이 션	반별 수업
	14일	추석 전날 휴무		
9월	21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어 르 신 치 아 관 리	신두교 강사(치과원장)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28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각 종 위 기 대 처 법	안동경찰서장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10월	5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혈압, 당뇨, 치매 관리	안동시 보건소장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11일	가을소풍		
10월	19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식 품 과 건 강	이종화 강사(안동대교수)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26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유 쾌 한 노래 교 실	김봉한 강사(노래강사)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11월	2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영 화 감 상	영곡 아트홀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9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웰 다 잉	김민아 강사(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16일	10:00	경 건 회	윤대원 목사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건 강 과 예 어 로 빅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11월	23일	10:00	경 건 회
10:30			건 강 체 조	김경숙 원장(안동에어로빅)
11:00			어 르 신 건 강 관 리	성소병원과장
11:50			공 지 사 향	김완수 학감

	12:00	점	심	식	사	권사회
	13:00	문	화	교	실	반별 수업
30일	<p style="text-align: center;">2학기 종강 및 겨울방학 특별순서 - 김봉한 강사(노래교실) 문화교실 발표회</p>					

#### 평생교육센터

안동교회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지역 문화 사랑방을 개설하여 매년 3월부터 6월까지와 9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및 강사들이 집중 수업으로 생활과 밀접한 강좌들을 열고 있다. 2016년에는 24개 강좌로 298명이 수강신청을 하였다. 교회 내 성도들의 참여보다 안동에 주거하는 非성도들의 참여 비율이 높다. 지역사회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의미이다.

2015년부터는 시(市)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무지개 학교 어학강좌로 영어, 일어, 중국어 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13> 안동교회 2016년 평생교육센터 개설강좌 및 강사소개

	강좌명	강사	강의시간	강의장소
1	힐링아트테라피	이명화	월 10:00-11:30	지하 생명터
2	한글서예	권중희	월 19:00-21:00	지하 세움터
3	한국꽃꽂이	이옥비	월 15:00-16:30	2층 사랑샘

4	야생화 생활자수	강영순	화 10:00-11:30	지하 생명터
5	리본공예	임은미	금 11:00-12:00	지하 새빛터
6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김정희	목 10:30-11:30	지하 새빛터
7	엄마표 창의수학	배경남	월 10:00-11:30	지하 세움터
8	소묘 스케치	김용식	월 19:00-20:30	지하 새빛터
9	수제 꽃차	김재숙	화 10:00-11:30	지하 새빛터
10	색소폰	김봉한	화, 목 19:00-20:30	3층 하늘소리 3층 푸른초장
11	하모니카 중급	김봉한	목 19:00-20:30	3층 하늘소리
12	하모니카 초급	이용	목 19:00-20:30	3층 아샵실
13	오카리나	김강희	월 19:00-20:00	3층 아샵실
14	바이올린	한보승	월 19:30-20:30	3층 비파실
15	첼로	한진	토 19:00-20:30	3층 비파실
16	플룻	장애영	토 16:00-17:30	3층 비파실
17	건강 한국무용	장금자	목 15:00-16:00	4층 몸짓터

18	라인댄스	김경숙	월 17:30-18:30	4층 몸짓터
19	체형교정 스트레칭	김한나	토 11:00-12:00	4층 몸짓터
20	탁구	박수권	화, 금 19:00-21:00	5층 탁구실
21	중학영재수학	임인선	토 10:00-11:30	지하 생명터
22	독서논술(초1-3)	홍양순	토 10:00-11:00	지하 새빛터
23	독서논술(초4-6)	홍양순	토 11:00-12:00	4층 어울림터
24	컴퓨터 프로그래밍 스마트폰 앱 제작	심재창 고주영	월 19:00-20:00	4층 어울림터

이외에도 안동교회는 시(市)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201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안동 와이즈맨의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초청잔치를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안동교회는 인간 소외현상에 대한 완화 또는 극복을 위해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본 연구에 교회의 모든 사역을 소개할 수는 없다. 사역의 다양성과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것만으로도 교회 내적으로는 성도들과 소통하고 교회 외적으로는 지역 시민들과 소통하는 양방향 소통을 통해 이웃들의 소외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교회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교회의 성장을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VI 장

### 결론

#### 요약과 평가

지금까지 안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인간 소외 현상과 그 극복의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I 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필요성과 선행 연구,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한성, 그리고 논문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I 장에서는 인간소외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인간 소외의 통(通)성경적 이해에 대해서 다루었다. III 장에서는 인간 소외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신학적 이해를 다루었는데, 일반적 이해에서는 심리학적 이해와 사회학적 이해에 대해서 다루었다. 신학적 이해에서는 폴 틸리히를 중심으로 창조와 타락, 소외와 죄, 소외된 인간의 증상에 대해서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보았다. IV 장에서는 안동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통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인간 소외의 현상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부가적으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설문문을 통해 유교에 의해서 받은 부정적인 영향에 의한 인간 소외의 현상들도 다루었다. 그리고 V 장에서는 안동교회가 인간 소외의 현상들을 완화 또는 극복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여러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로서 소통에 주목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교회 내의 인간 소외의 현상들과 그 극복의 사례들과 그 안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소통을 찾아냄으로써 교회의 성장이 단순히 새로운 사역의 도입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역들을 소통의 구조 속에

서 불만스런 환경들을 개선함으로써 인간 소외의 현상들을 완화 또는 극복함으로써 교회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의 성장 동력으로서 기존의 사역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소통의 구조들을 개선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또한 내부적 소통의 구조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었던 유익한 연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결론과 제언

2017년 대한민국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큰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언론과 방송에서 대통령의 소통방식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지금은 소통의 시대이다. 민주적 사회는 소통하고 논의하고 합의의 과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회이다. 과거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에 가치를 두고 국민들의 생각보다는 미래를 향한 발빠른 행보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경제발전에 대한 가치보다는 구성원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그 가치가 변하였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일방적 통치보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정중하게 들어주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로 변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임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130년이 넘는 역사의 현장을 걸어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또한 거센 저항과 도전을 받기도 했다. 때로는 사회변혁을 위해 사회참여적 노력들을 해오기도 했고,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유익한 사역들을 감당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교권주의, 개교회주의, 교역자의 도덕성 결여, 이단종파의 범람, 신학의 빈곤, 기득권과의 결탁 등 부정적인 평가와 저항과

도전들을 받아왔다.

이제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서 교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내부적으로는 인간 소외의 현상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들을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성도들과 소통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사역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21세기의 모든 인간들은 소외를 경험한다. 교회 내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인간들은 소외 시키는 주체가 되기도 하며 소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교회는 현재 진행형인 인간 소외의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연구와 실제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인간 소외에 대한 통(通)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을 극복할 만한 기독교적 가치를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알리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의 불만스런 환경들을 개선함으로 인간 소외의 현상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도들의 불만스런 환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 설교를 통한 일방적인 선포와 무조건적 순종의 강요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때로는 교회가 성도들에게서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교회의 사회 참여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기득권을 누리는 것과 구별된다. 사회 참여적 자세는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의 개선을 주장해야 하며, 때로는 직접 사회로 뛰어들어가 직접 그들의 요구를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소통에서 시작된다.

## 부록 I.

## &lt;설문지1&gt;

작성자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성별: 남, 여

교회 내 소외에 대한 경험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본 논문은 교회 내 소외의 유형들과 극복 사례들을 분석하여 교회의 소통 구조를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아래와 같이 '소외'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중복체크 가능)

- ① 제도적 소외 - 교회 내 규칙이나 제도에서 오는 소외감.
- ② 관계적 소외 -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오는 소외감.
- ③ 자기 소외 - 자기 스스로 일탈행위를 통해 오는 소외감.
- ④ 종교적 소외 - 초월적 존재(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오는 소외감.

2) 제도적 소외감을 느껴보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중복체크 가능)

- ① 스스로.
- ② 교회나 목회자에게 직접 문의해서.
- ③ 교회나 목회자에게 뿐 아니라, 신앙동료에게까지 상의해서.
- ④ 기타 (해결되지 않음을 포함해서 다른 방법으로 극복한 사례를 적어 주세요)



3) 관계적 소외를 느껴보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중복체크 가능)

- ① 스스로.
- ② 목회자에게 상담을 통해.
- ③ 목회자에게 뿐 아니라, 소외시킨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 ④ 기타 (해결되지 않음을 포함해서 다른 방법으로 극복한 사례를 적어 주세요)



4) 자기 소외(일탈)을 느껴보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중복체크 가능)

- ① 스스로.
- ② 목회자나 신앙의 동료들의 도움으로.
- ③ 목회자나 신앙의 동료들과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 ④ 기타 (해결되지 않음을 포함해서 다른 방법으로 극복한 사례를 적어 주세요)



5) 종교적 소외를 느껴보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중복체크 가능)

- ① 초월적 존재(하나님)에게 다가서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함으로.
- ② 1번 항목에 더하여, 목회자나 신앙의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함으로.
- ③ 1번과 2번 항목에 더하여,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게 알려 도움을 구함으로.
- ④ 기타 (해결되지 않음을 포함해서 다른 방법으로 극복한 사례를 적어 주세요)



6) 위에서 소외에 대한 경험과 극복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안동교회는 소외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관심이 있고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 ① 소외에 대해서 무관심 하다.
- ② 소외에 대해서 목회자와 신앙동료들이 도움을 주는 편이다.
- ③ 소외에 대해서 목회자와 신앙동료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도움을 주는 편이다.
- ④ 기타의견 (도움을 받은 사례를 적어 주세요)



7) 안동교회는 소외를 극복할 만큼의 소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① 소통이 안 된다.
- ② 소통의 구조가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편이다.
- ③ 소통이 잘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④ 기타 (교회가 소통의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조언을 한다면)



## 〈설문지2〉

작성자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성별: 남, 여

교회 내 유교에 관한 인식과 유교(혹은 유교적 사고)가 교회 내에 미친 영향(신분, 파벌)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본 논문은 교회 내 유교 혹은 유교적 사고가 교회 내에 미친 영향(소외)과 그것을 극복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교회의 소통 구조를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유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유교와 관련된 것들을 체크해 보세요. (1개 이상 체크)

- ⑤ 인(仁)을 근본으로 하는 유학을 받는 교이다.
- ⑥ 삼강오륜을 덕목으로 한다.
- ⑦ 사서삼경을 경전으로 한다.
- ⑧ 공자와 맹자가 그 대표적 인물이다.

2) 조선시대 유교가 미친 영향들을 아는 대로 체크해 보세요.(1개 이상 체크)

- ⑤ 신분과 계급으로 짜인 사회 질서를 합리화 하였다.
- ⑥ 부계(아버지)쪽의 혈연을 강조하여 남존여비사상을 뿌리 내리게 하였다.
- ⑦ 향교나 성균관 등의 교육 기관을 통해 지배계급에게는 유교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일반 백성에게는 삼강행실도를 보급하여 서로 다른 전통적인 생활윤리가 뿌리 내리게 하였다.
- ⑧ 파벌을 조장하였다.

▶ 기타:

---

3) 유교가 교회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1개 이상 체크)

- ⑤ 신분의 차별이 교회 내에서도 있었다.
  - ⑥ 유교의 파벌 문제가 교회 내에서도 있었다.
  - ⑦ ▶ 기타:
- 

4) 교회 내에서 유교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는가?

- ⑤ 거의 해결된 것이 없다.
- ⑥ 일부분 해결 되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한다.
- ⑦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었다고 본다.
- ⑧ 기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

---

5) 교회 내에서 유교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 ⑤ 기독교 가치관이나 성경적인 교리들을 가르침을 통해.
- ⑥ 총회와 노회, 그리고 교회 내 여러 합리적인 규칙들을 통해.
- ⑦ 기타(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이유들을 적어 주세요.)

▶

---

6) 교회 내에서 유교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사역들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기록해 주세요.

▶

---

## 참고문헌

## 외국어서적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 번역서적

Fritz, Pappenheim. *The Alienation of Mordern Man: An Interpretation Based on Marx and Tönnis*. 진덕규 역. *현대인과 소외*, 서울: 학문과 사상사, 1977.

Fromm, Erich. *The Sane Society*. 김병익 역. *건전한 사회*, 서울: 범우사, 1975.

Fromm, Erich. *The Revolution of Hope*. 최순혁 역. *희망의 혁명*, 서울: 서음출판사, 1983.

May, Rollo. *Man`s search for himself*. 백상창 역.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서울: 문예출판사, 1974.

Tillich, Paul. *The New Being*. 강원룡 역. *새로운 존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한국어서적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 대 백과사전 Vol.9*. 서울: 기독교문사, 1988.

김경재. *폴틸리히 신학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김경재. *폴틸리히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9.

김주연. *현대문화와 소외*. 서울: 현대사상사, 1976, 71-72.

박봉량. *신학의 해방*.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박창희. *갈등과 소외*.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89.

안계춘 외. *현대사회학의 이해*. 서울: 범문사, 1993.

정문길. *소외*.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4.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도서출판 통독원, 2012.

황승룡. *폴틸리히의 그리스도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논문, 잡지



- 김영수. “인간 소외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1994.
- 김연천. “현대사회의 소외와 치유.”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1993.
- 박도식. “K. 마르크스의 종교이론(終).” 50, *신학전망*, 1980, 155-160.
- 박도식. “인간소외에 관한 소고.” 70, *사목*, 1980, 81-94.
- 조상돈. “현대인의 소외 문제에 대한 목회상담방법의 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 조영성. “종교와 소외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90.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DaewonYoun


Place and Date of Birth: Hwaseong-Gun, Gyeonggi-Do, South Korea, April. 3, 1971

Parent's Names: YoungYoun and Chunji Lee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b>Susung High School</b> 39JangAnno 90-gil, JangAn-gu, Suwon-Si, Gyeonggi-Do, South Korea	Diploma	Feb. 10, 1990
Collegiate: <b>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y Seminary</b> 25-1 GwangJangno 5-gil, GwangJin-gu, Seoul, South Korea	B.A.	Feb. 16, 1995
Graduate: <b>Daejeon University and Theology Seminary</b> 41 HanNamno, DaeDeok-gu, Daejeon-Si, South Korea	M.div	Feb. 15, 2007
Graduate: <b>Soongsil University and Theology Seminary</b> 369 SangDo-no, DongJak-gu, Seoul-Si, South Korea	Th.M.	Aug. 17, 201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Daewon Youn

Name typed

April. 1. 2017

Date